

# 칭하이 무상사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뉴스잡지 121호



## 처방전 오해

칭하이 무상사 / 1991. 12. 29. 포모사 시후센터 (원문 중국어)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있었는데, 신랑은 신부의 행동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신부와 싸워 거의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었지요. 마침내 그는 의사를 찾아왔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로 오셨습니까?”

“아! 그 동안 제 아내랑 너무 많이 싸워서 이제 몸과 마음이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선생님. 어쩌면 좋겠습니까?”

“당신에게 운동이 필요하군요. 운동복을 사 입고 매일 10킬로미터씩 달리세요. 그리고 나서 1주일이나 2주일 후에 저에게 전화를 하세요.”

남자는 알았다고 하곤, 병원을 나와 그 길로 운동복을 사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 남자가 의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요즘 몸은 어때요? 좀 나아졌나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당신을 대하는 부인의 태도는 어때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이미 집에서 70킬로미터나 떨어져 왔는데요.”



##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칭하이 무상사 / 1999. 10. 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중국어)

차 사고로 죽은 세 사람이 천국의 심사대에 도착해 장차 어디로 가고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배정받기 위해 심사를 받고 있었어요. 천사는 그들에게 “장례식에서 친지들과 친구들이 슬프게 울 때, 관속에서 어떤 말이 가장 듣고 싶던가요?”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첫번째 사람이 대답했어요. “전 제가 가장 훌륭한 의사이자 부모였다는 말이 듣기 좋았어요.” 두번째 사람은 “사람들이 제가 최고의 남편이자 최고의 교수였으며, 자녀의 미래에 대해 가장 신경 쓰는 사람이라는 말이 듣기 좋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 그 때, 아, 이 사람은 아직 살아있군!”이라는 말이 가장 듣고 싶더군요.”



## 은근한 청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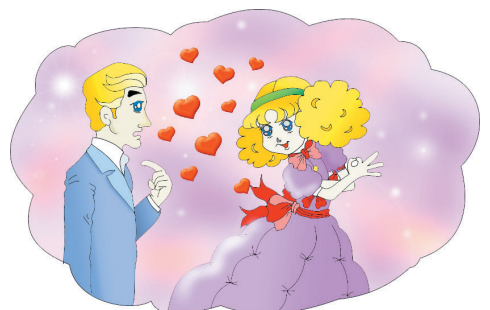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 / 1999. 10. 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중국어)

한 여자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여자가 말했어요.

“와, 당신은 제 세번째 남편처럼 생겼군요.”

“그럼, 당신은 세 번이나 결혼했나요?”

“아니요, 두 번밖에 안 했어요.”



## 앞표지 안쪽 / 26 스승의 농담

처방전의 오해/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 은근한 청혼/ 신사 중의 신사

## 2 다채로운 이벤트

미국/ 호주/ 포모사/

## 5 영감의 향연

관음법문은 잠재능력을 개발시킨다

## 6 사이버 시대의 잡지

사이버 시대 수행자

## 7 수행일화

깨달은 스승의 놀라운 관찰력

## 8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다

## 13 관음법문 사이트

## 14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

육체와 영혼은 상황에 따라 물든다

## 18 제일선

천상의 음률이 유서 깊은 고대국가를 고양시키다

## 20 전세계 채식식당

감언이설/ 똑똑한 부인/ 오해/ 다용도 파리채

## 21 골라뽑은 수행문답

모든 영혼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한다

## 22 지혜어록

수행을 해야만 불보살의 완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 23 수행일화

수행은 도로 공사와 같다

## 24 이야기 세상

영적인 동물 친구 개!

## 26 신기한 감응

탄생생 이야기

## 27 매체보도

한국 <뉴 휴먼단>/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인도네시아 자바포스트지

## 30 영혼의 고양/ 단신

인터넷으로 보는 스승님의 견본책자

## 31 관음가족

수행의 기쁨을 나누다

## 32 사랑의 실천

엘살바도르 / 미국

## 36 칭하이 무상사 TV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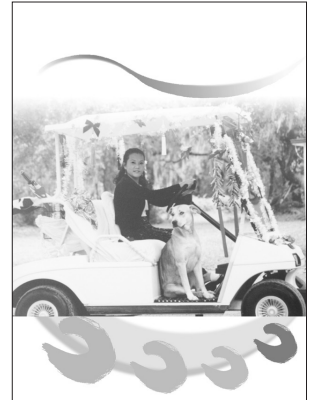
칭하이 무상사의 “예술과 영성”의 세계

## 37 스승님 말씀

집중과 전업

## 38 전세계 연락처

## 뒷표지 무상예술



천국에서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이름일 뿐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지혜입니다.

— 칭하이 무상사 —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뉴스잡지 121호

출판일자 : 2001. 11. 18.

설립연도 : 1990. 4. 1.

발행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발행인 : Lin Ping Xing

인쇄처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대한민국)

TEL : (02) 577-2158, 2202-8090  
www.godsdirectcontact.or.kr  
chinghai@unitel.co.kr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한국어, 중국어, 영어, 어울락어, 스페인어, 불어, 독일어, 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포르투갈어 등 전 세계 각국 언어로 발행되고 있습니다.







## 미국 소식



### "새 생활 엑스포" 참가

뉴욕 동수가 새생활 엑스포에서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고 있다



[뉴욕] 2001년 3월 2일부터 4일까지 뉴욕 센터는 "새 생활 엑스포"에 참가했다. 이 박람회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갈망하는 수만 명의 관심을 끌었다. 지역 기상청은 박람회 기간 동안 2피트가 넘는 눈이 올 거라고 예보했지만 스승님의 축복으로 날씨가 온화하여 다른 주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은 모두 집까지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몇몇 자원봉사자들은 이런 행사에 처음으로 참여했지만 전문가처럼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며, 내면의 빛과 소리의 명상에 대한 수많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었다.

스승님의 비디오, 전단, 견본책자, 잡지 등은 많은 이들의 영적인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었으며, 사람들은 관음법문에 대해 더 많이 알고자 3월 25일부터 4월 7일 사이에 개최될 비디오 강연회에 참석할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

어린 중국인 여학생은 스승님의 예술 창작품과 천의 디자인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녀는 특히 스승님

의 시를 좋아했는데, 그 시집을 살 형편이 안 되었다. 마침 다행히도 한 동수가 언젠가 스승님이 스승님의 책을 좋아하면서도 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사람에게 책을 선물해 주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다. 우리가 책을 무료로 가져가도 된다고 하자 그녀는 얼굴 가득히 행복하고 밝은 미소를 띄었으며, 마침내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사람들은 모두의 신실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이번 박람회는 내적으로 많은 경이로운 체험을 할 수 있었던 행사로, 박람회 둘째 날부터 모든 동수들은 강한 진동을 느끼기 시작했고, 전시 부스 주변에서는 빛과 기쁨의 분위기가 느껴지기도 했다. 어떤 참석자들은 알 수 없는 이유로 우리 부스로 다시 돌아와 앉게 된다고 말했다. 동수들은 사람들의 반복되는 이 방문이 평화롭고 고요한 자장을 형성하는 스승님의 축복 때문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이 특별한 사흘 동안 동수들은 주변을 정화하는 명상의 힘을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

## 호주 소식



### 호주 대청소의 날



[퍼스] 2001년 3월 4일은 매년 열리는 호주 대청소의 날로, 퍼스 센터는 언제나 그렇듯이 이 행사에 열

심히 참가했다. 기상청에서 섭씨 40도가 넘는 무더운 날이 될 것이라고 예보해서 동수들은 대청소 행사에





참석한 후 월례 선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한 사저는 육체적 운동 후에는 명상이 더 잘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양한 단체들이 각종 행사들을 개최하는 지역사회센터에 위치한 퍼스 센터는 원형 경기장과 인접해 있다. 사저들이 센터와 원형 경기장을 청소하는 동안,

사형들은 지역 상가구역을 청소하여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었다. 분명 스승님의 빛이 이곳을 비춰 이곳이 깨끗하게 변하게 된 것이다. 주위 환경 청소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건 최고의 기쁨이다.

## 포모사 소식



### 대학 캠퍼스에서 영성의 등불을 밝히다

[타이베이] 포모사 북구 대학생 동수들은 캠퍼스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소개하기 위해 대만국립대와 동오(東吳)대학의 연합으로 광음회(光音會)와 동오 건강채식회를 결성했다. 3월 중순 마침 대만대학은 정기 진달래 축제가, 동오대학은 설립 101주년 기념행사가 잡혀 있었고, 이 두 개 대학의 동수 대학생들은 타이베이 센터의 도움으로 채식 스낵코너와 스승님의 예술 작품과 책 전시회 등 규모가 큰 행사를 계획하여 육체와 마음, 영혼의 건강과 진보를 도모했다.

아름다운 비단을 배경으로 하고, 영적인 의미가 담긴 스승님의 그림과 수십 개의 만세등이 화려하게 빛을 발하며 전시된 진열대에는 많은 학생들과 방문객들이 찾아와 동수들에게 많은 질문을 해왔다. 스낵코

너는 엄선된 맛있는 채식 음식들 뿐 아니라 오롱차와 밀크 티, 녹차, 커피도 제공하여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그림을 감상하다 음료수를 마시기 위해 스낵코너에 들리기도 했다. 스승님의 다양한 책들이 진열된 서적 전시장에는 학생들이 평화로운 영적 진리 속에 잠겨 있었다.

방문객들은 맛있는 채식 음식들을 칭찬하며 방법 배움을 배우는 데도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그들의 얼굴은 보물을 찾았을 때처럼 기쁨으로 빛났다. 이슬비 속에서 가벼운 진달래 향기가 감도는 가운데, 행복한 모습으로 진열대 앞에 선 젊은 학생들은 스승님의 강한 사랑과 영적인 기운으로 고양되어 있었다.



스승님의 예술 작품들이 캠퍼스의 학생들과 손님들의 많은 눈길을 끌다

### 교도소 자원 봉사자를 위한 세미나 참석

[타이난] 3월 13일 타이난 교도소 교화부는 재소자에게 관심이 있는 개인 및 단체 자원봉사자와 교화위원을 위한 2001년 연례 세미나를 개최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를 대표해서는 오랫동안 정기적으로

교도소를 방문해 온 타이난과 까오핑 센터의 동수들이 세미나



재소자들에게 보다 큰 도움을 주기 위해 타이난과 까오핑 센터 동수들이 타이난 교도소의 세미나에 참석하다



나에 참석했다.

교도소장을 대신해 개회사를 한 장(張) 사무장은 재소자들이 출감 후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기 위해선 직업 훈련이나 교육뿐 아니라 종교적 감화를 위한 영성고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출감 후 재소자들이 직장을 보다 쉽게 구하기 위한 전문자격 취득을 교도소 당국이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세미나에서는 자원 봉사자의 마음가짐, 상담 지침서 및 범죄 문제에 관한 논점 등에 대해 토론이 이뤄졌는데, 교화부 책임자 황 더승 씨는 성문화된 법조항만으로는 범죄를 없앨 수 없으나 종교의 강력한 영향력은 부드럽고 효과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세미나 후에는 교화부 관리자들과 함께 교정 시설들을 둘러보았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재소자들의 일상 생활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장애 자원 봉사자들의 일을 위해서도 매우 유용한 것이었다. 전시되어 있는 재소자들의 음악과 서예, 그림, 희곡 등 놀라운 예술 작품들을 보고 참석자들은 그들의 훌륭한 기술과 솜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동수들은 스승님이 재소자 친구들은 우리 시대의 희생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새삼 깨닫게 되자 마음 속에서 연민과 사랑의 마음이 저절로 솟아났다. 재소자들이 출감 후 재능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들과 동감하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란다.

## 깨끗해진 해변을 보는 즐거움



남녀노소 동수들이 쓰레기가 없어진 해변에서 햇볕을 즐기고 있다



타이난 동수들이 정기 환경정화 작업의 일환으로 타이난 골든 코스트의 자연미를 되살려내다

## 타이난 경서 유통 사무소 창립



[타이난] 2월 25일, 타이난 센터는 신화 센터의 경서유통 사무소 개관을 축하하는 창립 기념식과 가족야유회를 개최했다. 포모사 각 지역 센터의 연락인들과 출판사 인원을 비롯한 모든 동수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이 행사에 참여했다.

우리 동수들이 설계하고 개조한 경서유통 사무소는 온화하고 우아해 보였으며, 설계와 장식을 맡은 사람들의 지혜와 꼼꼼한 솜씨가 드러나 있었다. 스승님의 책과 비디오 테이프, 오디오 테이프 뿐 아니라 스

승님이 이전에 추천하신 수행 서적도 갖춘 경서실은 동수들에게 개방되어 무료로 대여해 준다.



개관 기념식 - 동수들이 불보살이 센터를 축하하시길 기원하며 노향찬을 부른다



개관식이 있던 날, 동수들이 가장 많이 몰려든 곳은 1층의 출판물 전시장이었으며, 같은 장소에 있었던 스승님의 천의, 보석 전시장도 많은 방문객을 끌어 스승님의 가르침과 사랑의 창작품이 동수들의 최대 선호품임을 입증했다.

경서유통 사무소의 긍정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발랄하고 즐거운 분위기는 가족 야유회에도 넘쳐흘렀다. 즐거움과 사랑의 분위기는 모든 이들의 얼굴을 밝게 했으며 덕분에 두 행사 모두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다.



영성과 예술의 보물 창고-경서실과 천의, 보석 전시장



동수들이 친구와 친지들을 데려와 타이난 경서유통 사무소 개관식에 참석하다



가족 야유회는 재미와 웃음으로 총만했다

## 영감의 향연

### 관음법문은 잠재능력을 개발시킨다

타이난 신화 센터의 경서 유통 사무소는 세련된 장식과 온화한 분위기, 강렬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는 에너지로 동수들과 손님들의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

동수들의 감사와 칭찬은 작업팀, 그 중에서도 많은 심혈을 기울인 우 사형 덕분이다. 하지만 우 사형은 이 아름다운 사무실이 스승님의 축복의 결과라고 겸손하게 말한다. 실내 설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계 공학도인 우 사형은 스승님의 출판물과 예술 작품들이 질서 없이 전시되어 있는 것을 보고 스승님께 죄송스런 마음이 들었다. 우 사형은 최고의 수행법을 따르는 수행자로서, 스승님의 책과 예술 창작품을 가능한 가장 아름다운 환경 속에 전시해야 한다고 생각하곤 즉시 설계에 착수했다. 그는 스승님의 보이지 않는 안배로 자신이 이 일을 할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또한 일을 하는 도중 생긴 영감은 모두 신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했다. 우 사형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명상을 하고, 자연스럽게 내면의 답을 얻었다고 한다. 그는 천장과 조명, 진열장 등에 필요한 재료나 용구 및 배치도에 대한 정해진 계획이나 청사진도 없이 전적으로 그의 내면의 영감과 직감에 의존했고, 그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다. 우 사형은 이번 일로 스승님을 따르는 동안 또 하나의 수확을 얻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바로 “관음법문은 우리 내면의 재능과 잠재력을 개발시킨다”는 스승님의 말씀을 실제 생활에서 경험한 것이다.





인터넷을 이용하시는 스승님

## 많은 편리한 점들

칭하이 무상사 뉴스잡지는 기존의 정기 인쇄물에서 인터넷을 통해 24시간 접근 가능한 멀티미디어 온라인 잡지로 전환함으로써 사이버 시대와 보조를 같이 하고 있다. 이제 뉴스잡지는 선정된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청각 이미지가 충만해진 멀티미디어 형식으로 소개하여 독자들은 스승님을 한층 가까이 접할 수 있다. 관음법문 웹사이트에서는 관음가족 소식 및 광범위한 스승님의 가르침과 예술 창작품에 관한 최신 뉴스를 바로 접할 수 있다. 또한 스승님이 해주신 이야기의 오디오 및 비디오 영상, 감동적인 음악 공연, 아름다운 추억을 떠오르게 하는 지난 행사들 등도 만날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관음법문 웹사이트는 이전의 인쇄 형식과는 달리 시공을 초월하여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뉴스잡지를 볼 수 있다.

## 효율적이고 쉽다

동수들이 사이버 시대의 흥법과 발걸음을 같이 하도록 뉴스그룹에서는 “인터넷 사용법”이란 CD를 특별히 제작하여 인터넷 접속과 오

스승님은 언젠가 이 시대의 부처는 한 손에 위키토키와 핸드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팩스나 인터넷을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우리 역시 현대 부처의 제자가 되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시대에 처진 부처”가 될 수는 없다! 인터넷 사용법을 배워 스승님의 행보에 발맞추자.

디오와 비디오 영상 감상하기, 뉴스잡지 다운로드 받는 법 등 많은 기법을 동수들에게 지도하고 있다. 만화책처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제작된 이 CD에는 귀여운 소보리가 나와 여러분을 편안히 인터넷의 세계로 인도한다.

## 쉬운 인터넷 서핑, 무료 CD

[포모사 시후] 뉴스그룹은 동수들에게 사이버 시대의 이기인 인터넷을 사용하는 중요한 기법들을 가르치기 위해 특별히 학습용 무료 CD를 제작했다. 2001년 4월에는 포모사의 시후 센터 및 다른 지역 센터에서 인터넷 교실과 CD 배포활동이 이뤄졌다. 동수들은 스승님도 신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우리 시대의 가장 빠른 정보 통신 도구를 이용하신다는 것을 알고, 관음법문 웹사이트에서 최신 영적 정보에 빠르게 접근하기 위한 기법들을 통달하는데 깊은 관심과 성의를 나타냈다.

첫번째 인터넷 교실은 4월 첫째 일요일 시후 센터에서 열렸는데, 정오 무렵까지 뉴스그룹 서비스 센터는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고

# 사이버 시대 수행자



학습용 CD를 따라 온라인에 접속하는 법을 배우는 데 열심인 동수들

자 하는 어린 동수들로 붐볐다. 컴퓨터가 접속되자마자, 이들은 질서 있게 자리에 앉아 진지하게 배우기 시작했고 곧이어 어른과 노인 동수들도 합류했다. 모든 참가자들은 이 현대의 이기를 잘 사용하여 수행의 진보를 한 걸음 빠르게 도와주길 진지하게 희망했다.

이 무료 교육용 CD는 매우 인기가 높아 순식간에 바닥이 났다! 각 센터에서도 나중에 동수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사람을 보내 CD를 얻어왔는데, 현장의 동수들은 이 CD를 얻을 단체명상이 있는 날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그 날 바로 인터넷 사용법을 배우기 위해 사이버 시대가 요구하는 효율적인 정신을 대표하기에 충분했다.

CD는 예제를 통한 자세한 설명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과정을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도록 했다. 이 특별 제작품 덕분에, 인터넷을 전혀 이용해 보지 않았던 동수들도 이제는 느긋하고 편안히 사이버 공간을 향해하며, 현대 부처의 신세대 제자로서 그 발걸음을 뒤따르게 되었다.



## 깨달은 스승의 놀라운 관찰력

포모사 타이베이, 샤오 징어 사저

스승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세심함과 집중력을 생각할 때면, 나는 몇년 전 한 사저에게서 들었던 얘기가 떠오른다. 그 사저 말에 의하면 스승님께서 남자 장주들과 영화를 보시며 조명과 사진기법, 음악 등에 대해 가르치셨다고 한다. 나는 아주 어릴 적부터 영화를 보아 왔지만, 그렇게 세세한 부분들까지 주목하진 못했다. 이것이 바로 범인(凡人)과 스승의 차이인 것이다.

같은 영화를 본다고 치면, 나는 집중을 해도 단지 그 영화의 줄거리에만 주의를 기울이게 되는데 스승님은 다르신 것 같다. 스승님은 같은 사항에서 나의 10배를 배우신다. 그러니 스승님이 우리들의 스승이신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 않는가! 배움의 정도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지식에 따라 다르다. 즉, 더 많은 경험을 했을수록 더 세밀한 부분까지 주목하게 된다. 그러나 세세한 것까지 살피는 스승님의 세심한 주의력은 매우 비상하다. 스승님은 일단 보기만 해도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문제점을 정확하게 지적하신 후, 무엇을 고쳐야 할지 말씀하신다.

나는 운 좋게도 스승님 곁에서 일할 때가 있었다. 문제점이 생길 때마다 스승님은 “이건 부주의해서 생긴 일이야” 하고 슬픈 듯이 말씀하셨다. 나는 정말 그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했다. 나의 주의력과 스승님의 주의력은 다르니까! 만약 내가 조심스럽게 걷는 일에만 집중하면, 내 모든 주의력은 그것 하나에만 집중되어 다른 사람들과 부딪치거나 남의 발에 넘어지기도 한다. 혹은 다른 사람들의 길을 막고 섰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스승님은 모든 것을 동시에 완벽하게 돌보신다!

그러니 수행은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언제나 부족함만을 느끼게 될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언젠가는 스승님과 같이 완벽해지길 소망한다.



##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 수행자의 본분이다

칭하이 무상사 / 1990. 2. 18. 포모사 시후센터 (원문 중국어)

훌륭한 수행자는 어디를 가든 축복의 힘을 갖고 다닙니다. 자장과 공덕이 충만하여 접촉하는 사물이나 밟고 다니는 땅의 진동을 고양시킬 수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수행자 곁에서 만지고, 바라보고, 음식을 공양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그들 내면 조직 역시 변하게 되지요.

---

### 영혼의 영양제

---

우리가 마시는 우유나 보약, 많은 무기질이 함유된 광천수는 겉으로 봐서는 무슨 영양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육안으로는 광천수에 무기질이 들어있는지 알아낼 수 없지요. 겉보기엔 보통 물과 다름없는데,

실제로는 아주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들도 가피력이 있듯이 한 차원 높은 정신적인 면에서의 가피력도 있기 마련입니다. 유형의 것은 유형의 가피력으로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고, 무형의 것은 무형의 가피력으로 우리의 무형의 육체인 영혼과 정신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의 물질들은 물질적 가피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이 육체 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있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바로 정신인데, 보이지는 않아도 그 존재는 결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기분이 좋아.”, “기운이 없어”, “오늘은 정신이 없네”라고 말하는 것처럼 모두들 정신의 존재를 알지만, 그 누구도 그 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선 말을 못 합니다.

그러므로 수행자에게 축복의 힘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그 힘이 있다는 걸 압





니다. 그래서 아주 영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굉장히 편안해지지요. 또 오랫동안 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면, 몹시 그리워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육체인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무형의 음식인 것입니다. 식물의 뿌리에 물을 주면 식물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싱싱하고 무성하게 자라 많은 꽃과 열매를 맺습니다. 그건 물에 많은 양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영체에 무형의 물로 양분을 준다면, 그 영체도 편안함을 느끼고 쑥쑥 자라 크고 강해질 것입니다.

갠지스 강물에는 분명히 가피력이 있습니다. 갠지스 강물의 축복은 물질적인 것들에게 흡수되지요. 나무에 물을 주면, 그 물이 뿌리로 스며들어가 작은 잎들의 세포로 흘러 무성해집니다. 그 물에는 영양분이 있으니까요. 물질적인 것들도 영적인 영양제를 접하게 되면, 그것을 흡수하여 무성하게 자라납니다. 모든 세포들이 그것을 흡수하면 할수록 나무는 점점 커지게 되고, 나중에는 그 내부 조직까지 변하게 되지요.

아주 작은 식물이라도 물을 주고 거름을 주기만 하면, 그 식물은 모든 것을 흡수하여 더 강하고, 더 크고, 더 아름답게 자라 완전히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대수행자의 자장과 도덕성, 사랑과 같은 영적 영양제를 가까이 하면, 우리 역시 크게 성장하고 편안해집니다. 이는 육체적인 편안함과과는 다른 것으로서, 우리 육체는 그대로 변함이 없지만, 영적인 음식을 섭취한 영체는 더 편안하고 이완되지요. 그러므로 한 사람이 수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로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만, 그래도 그 물은 수많은 들판과 나무, 과일, 광석과 동물들을 먹여 살리며, 어디든 영향을 미치지요. 우리 수행자 역시 이처럼 풍부하고 양분이 넘치는 무형의 가피력을 가지고 있어 가까이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로운을 얻고 크게 진보합니다. 그래서 세세생생 누군가는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피능력을 발전시켜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말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농부는 곡물을 경작하고, 도로공사는 길을 닦고, 운전 기사들은 손님을 다양한 목적지로 데려다 주며, 수행자들은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축복합니다. 모두들 한 가지 일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모두 다 기술자나 건설업자, 농부가 되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잘못된 견해로 모두 다 농부가 되어야만 세상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단지 위장에 이로운 뿐이며, 다른 여러 면에선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의사나 건설업자, 기관사, 비행기 조종사, 기계 기술자 등과 같은 각종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적 양식을 기르는 농부들이 필요한데, 이런 사람들은 그 숫자가 매우 적습니다. (스승님 웃음) 채소나 과일을 기르는 사람들은 많지만, 영적 양식을 기르는 지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양식을 경작하는 관음법문을 수행하는 것이며, 그건 우리의 임무로서 세계가 이런 영적 양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 수행의 빛으로 무명을 퇴치하다

## 세상은 영적 양식을 필요로 한다

한 줄기 강물은 채소와 식물을 비롯한 수많은 중생에게 이로운을 줍니다. 때때로 땅 밑에 숨어 흐르

그러므로 입문하여 수행을 많이 하면 편안하게 되고, 외출하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서 그 편안함을 느껴 호의적으로 대하게 되지요. 처음에는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그들의 업장이 무거워 내면의 저항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보면 아주 고통



스럽게 느끼지요. 마치 오랫동안 태양을 보지 않고 어두운 방안에 고립되어 있다가 태양을 보게 되면 눈이 아픈 것처럼 말이에요. 또는 자고 있는데 갑자기 불을 켜면 눈이 불편한 것과 같지요. 우리는 늘 전등불을 보지만, 잠들어서 오랫동안 빛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아프다고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그 전등불이나 태양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요. 그건 우리가 아직 그 빛에 익숙해지지 않아서이니깐요.

어딜 가든 사람들은 수행자에게서 편안함을 느끼고 이로움을 얻습니다. 아픈 사람은 낫고 어리석은 사람은 좀 총명해지며, 사업이 어려웠던 사람들도 차츰 형편이 나아지지요. (대중 웃음) 건강이 나쁜 사람은 몸이 좋아지고, 원래 성격이 어두웠던 사람은 밝아지기도 하는 등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둘은 있기 마련이어서 여러분 중에는 입문하고 돌아가 남편이나 부인과 싸웠던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입문 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건 그들이 오랫동안 태양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갑작스런 햇빛에 노출되어 눈이 불편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입문하러 와서는 내게 사과를 합니다. (대중 웃음) 우리는 매일 햇빛 속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괜찮지만, 오랫동안 작고 어두운 방에 갇혀 있다가 햇빛을 본 사람들은 무척 괴로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축복하고 있으며,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이로움을 얻는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에게서 뜻하지 않은 저항을 받게 되더라도 그들이 오랫동안 햇빛과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이해하고, 화를 내는 대신 그들을 불쌍히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인내심을 가져야 해요. 그들이 편안함을 느끼게 되면 모든 것이 좋아질 겁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 법이니, 그들에게 좋다면 그걸로 만족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찾아가면 됩니다. 모두 필요한 것이 다르니까요. 예를 들어 태양을 필요치 않는 사람은 태양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태양을 좋아하지요. 병이 있으니까요. (스

승님 웃음) 아픈 사람들에게겐 태양이 있어야 병이 낫습니다. 또 우리는 목이 말라 물을 구한다지만, 그들은 아직 목이 마르지 않은데,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물은 아주 좋아요. 저도 방금 마셔봤는데 정말 좋더군요. 근데 당신은 왜 안 마시나요?” 하고 권한다면 정말 어이가 없어하겠지요.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대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 수행은 세상에 가장 도움이 된다

우리가 수행을 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로움을 얻습니다. 수행하고 나면 점점 더 만물과 하나가 되어 자신이 소유한 것은 세상의 재산이 되지요. 깨달은 스승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모든 공덕과 수행의 결실을 세상에 남기고 가지, 결코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진보되는 것이죠. 깨달은 스승들이 나타나 일정한 유산을 우리와 후손들에게 남기기 때문에 세상은 그 축복으로 점점 문명화되어 빛나게 됩니다. 전에는 전구와 전화, 자동차, 비행기, 텔레비전 등 아무것도 없었지만, 점차 개선되어 이제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고대에는 질병을 치유할 마땅한 의학도 없었지만, 지금은 의학이 많이 발전했지요.

그러므로 수행자는 이 세상에 제일 큰 도움을 줍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주는 도움을 부정할 순 없어요. 우리는 일하면서 수행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해치지 않지요. 우리 출가인들도 고생하며 열심히 일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수행이 매우 좋은 것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수행의 공덕을 모두 세상과 나누며, 자신만을 위해 수행하진 않습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우리가 주지 않으려 해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그 공덕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지요. (스승님



과 대중 웃음, 박수) 전구를 예로 들어보지요. 그 전구가 불을 밝히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전구는 자연스럽게 불을 밝혀 사람들이 그 밑에서 책을 읽거나 먹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합니다. 전구가 불을 밝히고 싶지 않다는 건 말이 안 되지요. 빛을 주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라서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자들은 원하던 원치 않던, 알게 모르게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걸 인식하면 애고가 자랄 테니까요. 그래서 “함이 없이 하는 것, 얇이 없이 아는 것, 그것이 진실로 아는 것”이라고 노자가 말한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것이 뭔지는 모르고 그냥 ‘그 무엇’인 채로 좋아합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박수) 그러므로 수행의 이로움이 없을까봐 걱정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로움이 있으니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이로움을 얻으면 그것으로 죽할 뿐, 자신에게 이로움이 있는지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로움을 얻는 건 분명하죠. 그 사실은 명확히 느껴져 최소한 생활이 달라지게 됩니다. 생활이 더 깨끗하고 자유로우며 이전에 답답했던 것과는 달리 생각도 밝아지게 되죠.

예전에는 누군가에게 꾸중을 들으면 괴로웠지만, 이제는 그렇게까지 괴롭진 않습니다. 나에게 야단맞을 때를 제외하면 말이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여러분은 스승이 늘 달콤해야 한다는 그릇된 생각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할 일을 자연스럽게 하도록 두지 않아요. 물론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여러분의 고약함과 뒤섞이면 나 역시 고약해집니다. 완전히 달콤해지려면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지요. 마치 물에다 우유를 조금 부었을 때는 별 차이가 없지만, 우유를 더 많이 첨가함에 따라 우유빛이 둘다가 결국에는 그 혼합물이 우유가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 이 세상과 수행과 공덕을 공유하자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가 수행의 공덕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유재산도 갖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개별적인 존재이면서도 모두 같은 것을 얻습니다. 태양이 빛을 발해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해도 그 빛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관음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우리 축복을 나눈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없습니다.

어제 국수를 파는 한 사형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국수를 만드는 동안 계속 오불을 외우는데, 손님들은 그 국수를 먹어도 살찌지 않아 아주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사업이 번창하고 있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만들기가 무섭게 팔려서 손이 모자랄 정도라지요. 어제 또 휴가를 내고야 겨우 단체명상에 올 수 있었대요. 장사가 너무 잘 되어 원래는 올 수 없었는데 ‘나는 스승님을 뵈러 가야 해. 일은 신경 쓰지 말자!’ 하며 온 거지요. 그는 다른 사람들이 그의 국수를 먹을 때마다 그의 축복이 고갈될까 걱정했어요. 정말 귀엽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축복을 잃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서 이로움을 얻으면, 더 많은 이로움이 생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니까요. 예를 들어 내 발은 얼굴보다 못생겼고 말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내 일부입니다. 발이 다치면 나 역시 불편하고, 발이 편하면 나도 편안하지요. 발이 불편하면 나 역시 아픔을 느낍니다.

이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하나입니다. 각각 경지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전체로서 우리의 일부분이지요. 우리 내면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외면에 머물러 내면 깊이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점을 보지 못하는 거죠. 내면 깊숙이 들어갈수록 여러분과 내가 같으며, 여러분과 나의 경지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아무런 차이





도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이로움을 준다고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두 동일체니까요.

전에도 이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손과 발이 입과 싸우고 있었어요. 손과 발이 입에게 불평했지요. “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아. 우리는 너를 먹여 살리느라 열심히 일하는데 말이야. 지금부터 일도 안 하고 너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을 거야. 어떻게 되는지 두고보자!” 그래서 입은 먹을 것을 얻지 못했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손과 발은 다 같이 힘이 없어져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고, 결국 병이 들었어요. 우리는 자신의 수행 공덕이 우리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고는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지 않는데, 그건 불가능해요! 다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받아가니까요. 대출이자처럼 말이지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그 이자는 우리 수입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다니는 길, 입는 옷은 모두 이 세상의 것입니다. 모두들 서로 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지요. 그런데 왜 우리가 가진 수행 공덕을 남들과 나누지 않으려 하나요? 축복을 나눈다는 걸 알지 못할 때는 물론, 그 사실을 알고 있을 때에도 역시 그 공덕을 나눠야 합니다. 게다가 축복은 모두 스승으로부터 오는 건데, 어쩌면 그렇게 인식할 수 있지요! (대중 웃음과 박수)

## 수행자의 본분을 다하라

전선을 타고 흐르는 전기는 전선 자체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발전기에서 온 것입니다. 전기를 주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럴 수 있나요? 천만예요! 전선의 본분은 곳곳에 전력을 공급하는 겁니다. 우리 개개인도 모

두 이처럼 최고의 가피력을 세계 곳곳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거죠. 내가 이미 말했듯이 사람마다 맡은 일이 다릅니다. 농부는 곡식을 기르고 건설업자는 도로를 닦지요. 그리고 우리는 전선처럼 이 축복의 에너지를 세상 곳곳에 전달합니다. 이 일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전선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수행하지 않고, 또 축복을 세상과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수행자나 깨우친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경지와 하는 일이 다릅니다.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쳐야만 교수라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수가 아니듯이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적은 이 세상을 축복하는 것이며, 이 본분을 다 해야 합니다. 그건 스승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며, 오계를 어기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지옥에 떨어질까 걱정되어서도, 공덕이 없을까 두려워서 하는 것도 아니지요. 바로 그것이 우리 본분이기에 하는 겁니다.

좀더 수행하고 나면, 여러분은 자신의 사명을 알게 됩니다. 그 사명은 사실 사명이 아니지요. (스승님과 대중 웃음) 자연스럽게 세상을 축복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수행을 잘 해야만 그런 가피력이 생깁니다. 끊긴 전선에는 전기가 흐를 수 없으므로, ‘전선’을 잘 보호하려면 우리의 신구의가 늘 청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찢어진 전선처럼 전력이 새어나가 아무 쓸모가 없게 되지요. 수도관도 똑같죠. 수도관은 물이 아니고, 서로 아무 관계도 없으며, 서로 다른 속성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수도관이 깨지면, 물은 우리 집까지 전달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수행하는데 계율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건 수도관이 없는 물일 뿐이에요. 물론 물은 깨끗하고 본래 유용한 것이지만, 수도관이 깨졌다면 우리 집까지 전달될 수 없지요. 이제 이해하겠어요? (대중 박수)



# 관음법문 사이트 Quan Yin www Sites

<http://www.smchbooks.com/> (포모사-중국어, 영어, SM 경서조)  
<http://www.godsimmediatecontact.com/> (싱가포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kr/> (한국-한국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 (일본-일본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id/> (인도-인도네시아어)  
<http://members.mweb.co.th/godsdirectcontact/> (태국-태국어)  
<http://www.spiritual-discovery.org/> (미국-중국어 번체, 간체,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 (미국-스페인어, 프랑스어, 영어, 중국어 간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spiritweb.org/Spirit/media.html?who=Suma%20Ching%20Hai>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 (미국-영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net/aulac> (미국-어울락어)  
<http://www.Godsimmediatecontact.org/video/>  
 (미국-Windows Media Video & Real Video; 다국어 지원)  
<http://www.godsimmediatecontact.tripod.com/> (미국-영어)  
<http://www.contactdirectavecdieu.org/> (프랑스-프랑스어)  
<http://godsdirectcontact.rma.cz/> (체코 공화국-체코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 (캐나다- Real Audio 지원, 영어,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de/> (독일-독일어)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 (오스트리아-독일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uk/> (영국-페르시아어)  
[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http://www.extra.hu/kozvetlen_kapcsolat_istennel) (헝가리-헝가리어)  
<http://Godsdirectcontact.bizland.com/> (스웨덴-스웨덴어)  
[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http://www.geocities.com/godsdirectcontact_2000) (폴란드-폴란드어, 영어, 어울락어)  
<http://www.contactodiretocomdeus.com.br/> (브라질-포르투갈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IhavecometotakeyouHome>  
 ('나는 여러분을 고향으로 데려가기 위해 왔습니다' 책 주문-영어)

**이메일로 잡지를 받아보시려면, 다음 사이트를 방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ch/service/service.htm> (중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service/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au/service/service.htm> (어울락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english/service.htm> (영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spanish/service.htm> (스페인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fan/service.htm> (중국어 번체)  
<http://www.Godsdirectcontact.com/chinese/jian/service.htm> (중국어 간체)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50개국어)**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download/index.htm>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 육체와 영혼은 상황에 따라 물든다

칭하이 무상사/ 1995. 6. 2. 포모사 시후센터 (원문 중국어)



한 사람이 매일 같은 행동을 40일간 계속하면 습관이 된다는 과학자들의 실험결과가 나왔습니다. 육식과 음주, 흡연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하루 이틀, 사흘 동안 하던 것이 한달 후엔 습관으로 변한 것이죠. 다른 많은 일들도 다 이런 식이에요.

## 뱀의 동반자가 된 소녀

나는 신문에서 전문적인 뱀 조련사인 17세 소녀에 대한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나는 뱀을 보기만 해도 무서운데, 이 소녀는 매일 뱀과 함께 먹고 자고 품에 안고 생활합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한꺼번에 수십 마리씩 껴안고 말입니다. 지독한 독사에도 익숙해 있습니다. 소녀가 갓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우유 대신 뱀의 독을 약간씩 먹였기 때문이라는군요.(스승님 웃음) 성장한 후에도 이것이 습관이 돼 이제는 뱀독에 대한 강한 면역이 생겨 뱀에 물려도 죽지 않습니다.

소녀는 매일 뱀과 함께 생활을 합니다. 때로는 뱀의 머리를 입안에 집어넣기도 하고, 뱀들이 그 소녀의 얼굴로 기어올라가서 입맞추고 핥기도 합니다. 가끔 소녀는 일부러 뱀을 자극시켜 피가 흐를 때까지 물게 하죠. 그리고 독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빨아서 뱉어냅니다. 매일 뱀에 물리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습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일이 믿어지나요? 하지만 정말로 있었던 실화입니다.

뱀을 사육하는 많은 예술가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예술가라 할 수 있지요. 기이하지만, 예술은 예술이지요. 세상에는 기이한 예술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상할수록 더 인기가 있지요. 반면, 나와 같은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습니다.(스승님 웃음) 옷차림을 보면 17, 18세 티가 나는데, 소녀는 이미 그 지역의 뱀 전문조련사가 되어 공연을 나가 그 일로 돈을 벌니다. 어릴 때부터 뱀에 물리는 것이 습관이 되어 뱀에 물리지 않고는 잠을 자지 못하죠.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소녀를 두려워합니다. 소녀가 뱀의 독성을 가졌기 때문이지요. 정말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녀는 자신의 처지가 매우 외롭게 된 걸 알았습니다. 소녀는 누구도 감히 자신에게 칭찬하지 않을 거라는 걸 느끼게 된거죠.

왜냐하면 벌써 고양이, 새를 만지거나 놀다가 소녀가 조금이라도 생채기를 내면 바로 죽고 마는 일을 벌써 여러 차례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사람이 동물들에게 굶히거나 상처를 입으면 독이 올라 죽게 되는데, 소녀의 경우는 자신이 낸 상처에 동물이 죽는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 버린거죠. 그런데 이 소녀가 손톱으로 동물들에게 생채기를 내면 동물들이 죽어 버리죠. 소녀의 몸 속에 독이 있으니 당연히 손톱에도 독성이 있겠지요.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그녀의 혈액이나 몸의 독성분이 나와 섞인 것도 아니고, 동물들이 피를 흘릴 때까지 물어뜯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동물





들은 단지 그녀의 손톱에 조금 긁히기만 해도 죽어 버렸습니다. 이런 일을 몇 차례나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녀를 무서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사람을 다치게 한 적은 없다고 소녀는 말하고 있어요.

뱀과 함께 수년 동안 지내면서 뱀독에 대한 면역성이 증가한 건 소녀에게 좋은 일이지만, 이 정도로 면역성이 생기려면, 소녀의 몸에 충분한 독소를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려면, 우선 항원을 우리 혈액 속으로 주입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즉 독으로써 독을 제압하는 것이지요. 이 소녀도 그와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소녀가 태어나자마자 소녀의 아버지는 독을 먹이거나 주사로 주입시켰습니다. 소녀를 뱀 전문조련사로 키우기 위해 어릴 적부터 이런 식으로 훈련시킨 것이죠. 그래서 소녀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개나 고양이와 함께 지내듯 뱀과 가까이 지냈던 겁니다.

소녀는 뱀이 해를 끼치지도 공격적이지도 않다고 합니다. 누군가 귀찮게 하면 당연히 공격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해치지 않지요. 소녀는 종종 뱀들이 자신을 물게 하는데, 몇 번이나 물려야 잠이 든다니, 정말 오싹한 일이지요! 독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독을 빨아 내지만, 소량의 독은 여전히 소녀의 몸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주입된 독과 어릴 때부터 흡수한 독으로 인해 이제 소녀는 독사처럼 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녀에게 한번 긁히기만 해도 동물들이 죽어 버리는 겁니다. 소녀 역시 고의는 아니었어도 뱀과 같이 생활해야 했기 때문에 이런 면역능력을 키워야만 같이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마치 누군가와 함께 살려면 그 사람과 같아져야 살 수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 소녀가 뱀과 다른 유일한 차이는 사람들을 고의로 물거나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뱀은 그걸 모르죠.

## 좋은 품성 기르기

수행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뱀과 같이 있는 건 단

지 독이 생기는 물질적 관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 역시 독해지거나 혹은 고결하고 강력해지도록 훈련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무당이 주문을 통해 영험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문을 영험이 있게 만드는 건 그들 자신이죠. 그러나 하루에 한번 주문을 외는 걸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건 불가능하죠. 그들은 주문을 매일 외우고 또 외우며, 사람을 죽이거나 돕는 생각을 그 주문에 실어 넣어 그 의지력을 끊임없이 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문을 외우면 그대로 실현되지요. 그리고 이렇게 훈련이 잘 되어 영험있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주어도 역시 같은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그 소녀도 뱀은 아니지만, 뱀독에 늘 접촉하면서 독성이 생기게 되었지요. 원래 사람은 뱀에 물리면 죽지만, 이제 뱀이 독의 효력을 소녀에게 전이시켜 소녀는 마치 뱀의 도구처럼 변해 소녀가 물거나 상처만 내도 죽게 됩니다. 그녀에게 입맞춤 용기가 있는 남자에게 행운을 빕니다! (스승님과 대중 웃음) 소녀의 몸은 이제 독성이 생겨 손톱을 매일 깨끗이 닦아도 독이 있지요. 그녀가 아이를 갖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군요. 어찌면 그 아기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독성을 갖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수행자들은 자신의 본성에 의지해 진정으로 해탈을 갈망해야 하며, 진정한 사랑과 선(善)의 힘, 중생을 구할 수 있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력이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때에야 비로소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힘을 완전히 체득하고 나면, 누구에게 전해 줘도 그 힘을 받은 사람은 그런 힘을 갖게 됩니다. 서서히 그도 강력해져서 마침내는 우리처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 우리의 의지력에 의존합니다. 평범한 사람이 무술을 단련하는 것도 이와 같아 내면에 살기를 품고 적을 공격하듯이 주먹을 휘둘러야만 힘이 생깁니다. 만일 여러분이 너무 선량하여 싸우는 걸 무서워하고, 손이 나가지 않는다면, 훌륭한 무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소 폭력적인 무예에 해당되는 이야기로, 정말 훌륭한 무사라면 싸우지 않습니다. 닭싸움을 보면, 잘 훈련된 싸움닭은 가만히 서있기만 해도 상대 닭이 자신을 보고 도망가거나 무릎을 꿇고 읍니다. 싸움에 져서 우는 게 아니에요. (스승님 웃음) 아마 무서워서 나무 뒤에 숨어 울겠지요. 이를테면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재능을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시키도록 자신을 매일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면, 같은 이상을 지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무슨 일이든 마찬가지로 그 소녀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만약 그녀가 항상 뱀과 같이 지내지 않았다면, 그런 독의 힘을 키우지도, 그렇게 독성을 지니게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물질적 요소로 물질적인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요소 역시 영적인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수행은 영적이기에 우리는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런 힘을 서로 전달하고, 서로 돕고 의지하면 수행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는 확실합니다. 어떤 사악한 사람이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면, 우리같이 착한 사람들도 사람을 구하는 의지력을 훈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논리적인 이치로 막연한 이론이나 미신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관음법문을 수행하면 매사에 분명하고 명쾌해야지 미신적이 되어서 안 됩니다.

## 마야와 거래하지 말라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몇몇은 신심이 부족하여 톡하면 무당을 찾아가거나 토지공에게 절하러 갑니다. 여기에 “토지여신”이 있는데도 토지공을 찾아가 절하다니요! (스승님 웃음, 대중 박수) 여러분은 정말 어리석어요! 여러분이 마야에게 무슨 일을 부탁하면, 그건 마야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마야에게 빚을 지면, 잠시 후 마야는 여러분의 영혼을 요구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을 돌보아야 해요. 난 마야에

게 찾아가 고개를 숙이며 여러분의 영혼을 되돌려달라고 부탁하지는 않을 겁니다. 때때로 여러분은 물질적인 이익이나 덧없는 육체를 위해 다른 사람들이나 그다지 등급도 높지 않은 귀신들에게 함부로 기도하는데, 그러면 그런 중생들은 여러분에게 수고비를 요구합니다. 때로 그들의 수고비는 아주 비싸서 여러분의 영혼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들의 부하로 살 수도 있고, 외로이 떠도는 귀신이나 그들의 비천한 노예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영적인 노예는 육체적인 노예보다 훨씬 더 비참하지요. 나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부나 재산은 값지 않아도 되지만, 그 외 다른 사람에게서 받은 것은 값야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를 함정에 빠트려 비싼 값을 치르게 하지요. 마찬가지로 수행의 세계에도 그런 덫이 아주 많습니다. 저급한 중생들, 저급한 귀신들에게 항상 조건이 있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면, 때로 빠른 도움을 얻는 대신 비싼 값을 치러야 하고 조만간 엄청나게 후회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을 위해 빌려 가진 값을 겁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거래를 한다면, 그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해결해야 해요.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은 수백만, 수십억 달러에 영혼을 팝니다. 하지만 그 돈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에게 아무 소용도 없게 되죠. 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 돈 때문에, 영혼을 저당잡혀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그곳은 돈이면 해결되는 이 세상과 사정이 다릅니다. 귀신은 돈을 바라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좋은 집안의 딸인데 철없이 불량배나 악당과 어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들은 여러분에게 나쁜 일을 시키거나 돈을 요구합니다. 돈을 주면 아마 풀려나겠지요. 그러나 귀신들에게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 대신 여러분의 영혼을 원합니다. 그것도 아주 오래오래 .....얼마나 오래 인지는 나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약속한 것에 달렸지요. 때론 약속도 필요 없이 일단 그들의 도움



을 받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그들 소유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귀신 사회의 계산 방식이며, 법칙이죠. 그러므로 문제를 일으킨 후 문제가 생겼다고 나를 찾아오지 마세요. 나는 그런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으며, 그런 어리석은 일로 귀신에게 머리를 숙일 수 없습니다. 사도를 견고 싶으면 여러분 스스로 가면 됩니다. 나같이 위풍당당한 스승이 그들에게 가서 애걸을 해야겠습니까? 그래야 할까요? (대중: “아닙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들 앞에 무릎꿇고 여러분의 영혼을 풀어 달라고 간청하길 바랍니다? 그걸 원하나요? (대중: “아닙니다.”) 나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재산이나 덧없는 생명을 위해 여러분 자신보다 경지가 낮은 귀신이나 사람에게 머리를 숙이고 애걸한다면, 그건 여러분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경고하는데 나는 이런 일에 개입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스승인 내게 도움을 청한다면 여러분을 위해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나를 믿지 않고 그런 저급한 중생을 찾아가 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일이므로 나는 그 결과에 대해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세계마다 고유한 법칙이 있으니까요. 내가 이미 여러분은 데리고 빠져 나왔는데 여러분이 다시 도망가고 싶다면,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 단체명상에 늘 참석하고, 선지식을 가까이 하라

방금 여러분에게 들려준 뱀 사육에 관한 이야기는 실화입니다. 몇몇 신문에도 보도되었지요. 신문을 보거나, 뱀 사육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몸엔 분명히 뱀독이 있어서 뱀에 대한 충분한 면역성을 갖고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뱀은 아주 위험해서 물리지 않고 뱀에 스치기만 해도 즉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지요. 그 소녀도 뱀에 물리지 않고는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했

는데, 그건 우리가 어떤 중생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그들에게 쉽게 동화된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 줍니다. 그래서 뱀과 오랜 세월을 보낸 그 소녀는 뱀과 같아졌지요. 겉모습은 사람이지만, 몸 속은 독을 지닌 뱀과 다름없습니다. 그녀는 뱀에게 물려도 죽지 않아요. 매일 뱀과 함께 지내 같은 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동수, 선지식과 같이 지내면 영혼도 물이 듭니다. 물질적인 것은 물질적으로 물들이고,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물들이니까요. 이것은 아주 논리적인 이치이지요. 사람들이 여기에 오거나 단체명상에 오면 자신이나 가정, 나아가 사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울 뿐 해로운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은 철학적인 측면에서 말한 것이며 영적, 지혜적인 측면으로는 여러 가지 깨달음에서 오는 이로움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눈으로 즉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게 됩니다. 뱀과 함께 있어도 뱀처럼 변했는데, 성인과 같이 있는 우리가 어찌 성인이 될 수 없겠습니까? 부처를 따르면 부처가 되고, 뱀을 따르면 뱀이 됩니다. 아주 자연스런 것이죠. 때로 동물을 기르거나 돼지나 소를 도살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변하는 걸 보기도 하는데, 돼지를 많이 도살한 사람들은 얼굴도 돼지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대중: 예) 그래서 때로는 신문에서 똑같은 모습을 한 두 얼굴을 보기도 하지요. (스승님 웃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 단체명상의 이로움에 대해 의심을 갖지 마십시오. 함께 명상하는 이로움에 대해 의심하지 마세요. 또한 동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로움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지 마세요. 같은 것끼리 끌어당기기 마련이니, 서로 격려하고 도움을 주면, 우리는 점점 동일체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수행에 정진하여 신구의의를 정화하도록 노력하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수행에 정진하여 신구의의를 정화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서 만나는 것 자체로도 이로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중 박수)



# 천상의 음률이 유서 깊은 고대국가를 고양시키다

## 진리를 나누기 위한 페루 여정

1월 말, 관음사자가 페루에 도착하여 7차례의 비디오 강연을 가진 후, 진리를 갈망하는 신실한 이들을 입문시켰다. 강연회 때마다 페루 사람들은 뜨거운 열정으로 강연장을 가득 채워 그들의 높은 영적 수준을 보여주었다. 사람들의 가슴 속 깊이 자리잡은 수행에 대한 갈망은 깨달은 스승을 만나 가르침을 접하자마자 그들의 영혼을 일깨웠다. 그리하여 많은 페루 사람들이 스승님을 알아보고 관음법문을 수행하게 되었다.



페루의 신문사들이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 소식을 보도했다

### 진리를 갈망하는 영혼들

단 한 달만에 우리는 페루의 6개 도시에서 7차례의 비디오 강연을 열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지역 신문사와 라디오 및 TV 방송국은 열렬히 맞으며 시민들과 이 관음법문 강연에 대한 회소식을 나누고 싶어했다. 많은 방송매체에서 인터뷰 신청이 들어와, 때로는 하루에 몇 군데의 라디오 방송국 인터뷰에 응해야 했는데, 친차 시에서는 TV 방송국 1곳과 5개 라디오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갖는 등 스케줄이 빠듯했다. 인터뷰 기간 동안, 몇몇 방송국에서는 스승님 소개 비디오인 “사랑의 길을 걷다” 중 일부를 발췌하여 생방송으로 내보내며, 많은 방송국이 스승님의 노래 “I'll forever love you”를 서두로 방송했다. 또한 이 노래는 인터뷰 내내 배경음악으로 잔잔하게 흘러 나오기도 했는데, 그 아름다운 선율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청중들에게 깊은 감동과 고양된 분위기를 전해 주었다.

고대도시 쿠스코 시에서 열린 강연회는 지역 주민들의 강한 영적 분위기에 힘입어 가득 찼다. 200석 규모의 강연장에 300여 명이 몰려와 좌석에 앉지 못한 사람들이 계단과 좌석 뒤편까지 가득 메웠다. 강연장이 너무 붐벼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실망을 금치 못했다. 생방송 인터뷰에서 한 라디오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강연장 전체가 사람들로 꽉 들어차서 강연을 한번 더 열어야겠네요. 또 관음사자가 영적이어서인지 매우 친밀하게 느껴지는군요.”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서는 강연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 300여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견본책자만을 받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요청으로 비디오 강연회를 한 번 더 열기로 했는데, 스승님의 축복



많은 사람들이 주로 스승님의 아름다운 사 진에 매혹되었다. 진선미의 가르침이 이들의 갈망어린 영혼에 감로수가 되어주다







강연장마다 참석자로 가득 차다. 참석자들이 앉거나 선 채, 스승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



으로 단시간 내에 아주 이상적인 사성(四星)급 호텔을 찾을 수 있었다. 원래 이 호텔은 장소 임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견본책자를 읽어 본 호텔 지배인이 우리가 이 곳 시민들에게 스승님의 신성한 가르침을 전하며 관음법문을 무료로 가르쳐 준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강연장과 오디오 장비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 강연회는 대단한 성황을 이루었다! 참석자들은 행복한 미소를 지었으며, 나중에 연락할 주소를 남긴 사람들도 100명이 넘었다.

치클라요 시에서는 스승님의 비디오 방영을 위해 TV 4대나 설치했는데도, 500명의 참석자 중 많은 사람들이 서 있어야만 했다. 방편법을 배우는 동안 선 채로 명상을 하는 그들의 모습은 매

우 감동적이었다.

아레퀴파 강연에서도 많은 사람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많은 참석자들이 바닥에 앉고, 100여명 이상이 밖에 임시로 설치된 TV를 통해 강연을 시청해야 했다. 참석자들은 강연 내용에 큰 관심을 가졌으며 밤늦게까지 많은 질문을 던졌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티티카카 호(湖) 근처에 위치한 영적인 도시 푸노는 원래 여정에 포함 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곳의 연락인이 매우 신실하게 여러 번 요청해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리마의 3명의 입문자가 우리를 돕기 위해 눈 덮인 고산을 헤치고 해발 3,850미터의 푸노에 도착해 이틀 간 여정을 같이 했다. 날씨가 매우 뜨거운 리마에서 춥고 공기밀도가 낮은 고산지대인 푸노에 도착한 이들은 날씨에 채 적응하기도 전에 바로 포스터를 붙이고 전단지 배포작업에 착수했다. 이런 그들의 신실함은 매우 감동적이었다.

이 강연회 또한 성공을 거두어 많은 사람들이 흥분된 마음으로 방편법을 배우는 동안 특별한 체험 속에 큰 축복을 받았다.

## 뒷 이야기

현재 페루의 경제, 정치적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다. 그래서 아레퀴파에서 가진 인터뷰 중 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다소 감정 섞인 질문을 했다. “칭하이 스승님은 페루의 불안정한 정국을 알고 계신가요? 스승님은 우리를 어떻게 도울 건가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스승님께서도 도덕성이 정치의 근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관음법문을 수행함으로써 국가와 국민들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도울 수 있으며, 고차원적인 내면의 빛과 소리의 진동을 통해 우리의 사랑과 지혜, 힘을



관음사자가 TV 및 라디오 방송국과 인터뷰를 하면서 청중에게 스승님과 관음법문을 소개하고 있다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그 기자는 태도를 즉각 바꿔 청취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에겐 영적 수행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연회 동안 페루 동수들은 관음사자의 도움을 받아 매우 열심히 일했다. 대부분의 도시에서 흥법 기금을 모으고 전단을 인쇄하고 강연장을 빌리는 등 각자 대단한 열성을 발휘한 결과, 강연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런 경험을 통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동수들은 모두 페루에서 스승님을 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한 사자는 스승님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두 손을 맞잡고 연신 머리를 숙여 예를 올렸다. 푸노의 연락인은 스승님의 자비와 사랑을 생각하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관음사자는 그녀가 울면 스승님이 슬퍼하신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시는 스승님을 위해 더 많이 웃으라고 부탁했다. 스승님에 대한 다른 입문자들의 신실함도 매우 감동적이었다.

우리는 친절하고 신실하며 순수한 가슴을 지닌 이 형제자매들에게 신의 축복이 함께 하고 스승님을 뵈기 원하는 그들의 소망이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했다.



## 뉴질랜드

### 뉴질랜드 채식주의자 협회(주)

사무실 : P.O. Box 77- 034, Auckland 1030, New Zealand

전 화 : 64-9-828-9301

뉴질랜드 채식주의자 협회(주)는 사람들에게 채식 식단을 소개하고 일반인들이 채식주의자의 생활방식을 시도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원봉사 단체다. 수년 동안 이 협회는 “채식주의자에 대한 사회적 통념”, “철분과 함유 식품” 팜플렛, 채식으로 아기 키우기, 채식 요리법 등 많은 출판물들을 발간했다. 작년에 이 단체는 채식주의에 관한 자료를 뉴질랜드의 모든 고등학교에 발송했다. 이에 앞서 ‘V’ 마크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지도를 높이려고 노력했는데, ‘V’ 마크는 채식주의자들에게 적합한 일정 기준을 충족시킨 기업의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 표시다.

2000년 4월 스승님이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애오테 센터에서 강연하셨을 때, 이 협회에서 발간한 책자가 강연장에 전시되었고 협회 대표단도 강연에 참석했었다. 이 대표단은 스승님의 강연을 무척 좋아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어떤 ‘의의’를 찾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으며, 자신이란 틀을 넘어 세상의 미래를 염려하며 자신을 희생하여 사회에 공헌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로 인해 큰 용기를 얻었다고 한다. 또한 스승님의 약력과 수많은 업적에 대해 읽은 적이 있는데, 칭하이 스승님을 실제 뵈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 일 본

### 상카라

주소 : 日本 静岡縣 濱松市 元目町 110-2號

전화 : (053) 478-7553

<http://www.ohmaki.co.jp/shankara/>

매일 영업 (수요일 제외)

영업시간: 오전 8시 - 오후 8시

(화요일, 일요일 및 국경일 : 오전 8시 - 오후 7시)

다음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전 세계 채식 식당에 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http://www.godsdirectcontact.com/vegetarian/veg.html>



## 모든 영혼은 각기 다른 선택을 한다

칭하이 무상사 / 1998. 6. 7. 미국 LA (원문 영어)

**질문 :** 그리스도는 ‘성령에 대한 모독’을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저를 포함한 어느 누구도 이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그 죄인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나요?

**스승님 :** ‘용서받지 못할’이란 것은 이 세상에서의 관념일 뿐,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이를테면 그리스도가 왔을 때 사람들이 중상모략을 하거나 그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를 모함에 빠트리는 것과 같은 일들은 분명 ‘성령’에 반하는 행위지요. 그리스도는 바로 성령이니까요. 그러므로 그런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다고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영혼이 진심으로 참회하면 바로 용서받을 수 있지요.

그래서 예수가 자신에게 사형을 선고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는 그들이 그들의 본분을 해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예수의 소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해야만 했으며, 그럼으로써 예수는 하늘에서 뿐 아니라 땅에서도 지금까지 찬양받고 영광된 것입니다. 만일 그가 그렇게 죽지 않았다면 아마 쉽게 잊혀졌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유명하지도 않았겠지요. 다른 깨달은 스승들도 이 세상에 왔다갔지만, 예수만큼 유명하진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예수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을 용서했지요. 그들이 맡은 배역은 그런 것이었어요. 물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아니었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선택이지요. 영화처럼 말이에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영화에는 살인자와 탐정이 있으며, 희생자도 있고 영웅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건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 결정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지 못할 일처럼 보여도 사실 용서받지 못할 일이란 없는 거죠. 물론 우리는 절대 그와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우주의 게임에서 모든 영혼들은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서로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장거리를 택하는 사람들도 있고, 우리처럼 단거리를 택하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지요. 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스승과 도반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택에 따라 새로운 일이 일어나며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러면 또 다른 차원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죄인도 성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문제없지요. 언제나 희망과 무한한 사랑이 있으며, 그건 가장 못된 범죄자에게도 예외는 아니어서 그를 위한 넘치는 사랑이 있습니다.



# 수행을 해야만 불보살의 완전한 도구가 될 수 있다

칭하이 무상사/1998. 5. 13. 포모사 타이난 (원문 중국어)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보살이 언제 우리를 도구로 삼길 바라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는 행동마다 업장이 되겠지요. “업장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가령 불보살이 내가 홍법을 많이 해서 덕있는 사람들에게 나의 가르침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내 강연을 찾아오도록 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 해도 내가 홍보에 대해선 상관하지 않으니, 불보살은 돈이나 권력이 있는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도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많은 종교잡지와 신문을 소유하고 있으니까요. 불보살이 그들을 통해 일할 때 그들이 그것을 안다면 나에 대해 찬탄의 글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불보살의 힘은 그들에게 독이 되어 칭찬의 말이 비방의 말로 바뀌게 되지요.

그러므로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보살의 가피가 소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평범한 수행자라도 나를 대신해 많은 사람들과 나의 가르침을 나눈다면, 그 공덕은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한량이 없으며, 매우 빨리 성불할 수 있지요. 그러나 수행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큰 사명을 주면, 스스로의 업장으로 바뀌게 되죠. 사람들은 불보살의 은총을 갈구하지만, 수행하지 않는다면 불보살이 축복해도 소용이 없어요. 위가 좋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독이 되며, 약을 복용한다 해도 역시 소화시킬 수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이런 이치를 이해해야 해요. 이미 위가 나빠졌으면 우유를 마셔도 독이 될 뿐이지요. 우유는 아이들에게는 아주 좋고, 건강한 사람들은 더욱 건강하게 만들지만, 위가 나쁜 사람에겐 가장 좋은 음식을 줘도 소화하지 못하고, 단지 독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불보살의 가피를 더 잘 소화시키려면, 우리는 친구의를 정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보살이 우리를 축복할수록 더 많은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좀 전에 언급했던 교회 사람들을 예로 들어 보지요. 만일 그들이 나를 위해 그 일을 끝마쳤다면, 많은 공덕을 얻고 발전하여 이로움을 얻었을 겁니다. 또 성불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마치지 못했고, 오히려 업장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일을 하고, 그 일이 불보

살이 주신 기쁜 일이란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똑같은 지시, 사명, 결과라 해도 그들은 업장만 지을 뿐 복을 짓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해야만 업장이란 본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과 모든 것이 신의 안배이며, 우리 두뇌의 독이 업장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관음법문을 수행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편견과 쓰레기를 깨끗이 씻어내기 위해서 말이예요. 그러면 어딜 가든 청정국토가 되며, 무엇이든 감로수로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많은 일을 해도 모두 우리의 에고와 명성과 부를 위한 일이 될 뿐 조그마한 복도 얻지 못하게 되지요. 또,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 신, 우리의 가장 전능한 힘의 안배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 두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일단 우리가 친구의를 정화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올바르게 합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수행을 해야 하지요. 이제 여러분은 이 축복이 높은 곳에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을 것입니다. 축복의 힘을 독으로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육조 단경에서도 말





하기를 “선(善)도 생각지 않고 악(惡)도 생각지 않을 때, 비로소 도(道) 안에 있다”고 한 것입니다. 도는 어떤 한 방향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도가 악행을 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의 생각, 두뇌로 그것이 행해졌을 때 악행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수행하려는 마음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말은 모든 경전에 쓰여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우선 자신부터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며 세상을 평온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직 세계평화에만 매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다른 세 가지 것들은 관심 가질 만한



가치도 없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하죠. 어떻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단 말입니까? 집을 지을 때도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기초가 없으면 건물이 올라갈수록 많은 문제가 일어나거나 더 빨리 무너지겠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계율을 지키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다는 남의 말에 귀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이 점에 대해 분명히 말하는 바입니다.

수행일화



## 수행은 도로 공사와 같다

포모사 타이베이, 종 원홍 사저

20여 년 전 타이베이의 서문(西門)지역은 번잡하게 붐비는 거리였다. 그러나 나중에 타이베이에 MRT 시스템(고속수송시스템)이 추진되면서 중화로 양쪽에 서 있던 가게들은 모두 헐리게 되었다. 공사 기간 동안, 중화로는 차량과 보행자들이 한데 얹혀 매우 혼잡하였고, 울퉁불퉁한 노면은 걸어다니기도 힘들고 위험스럽기도 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단체명상에 참석하기 위해 운전하고 있었다. 차가 중화로에 진입했을 때, 나는 문득 고개를 들어 안내판에 걸려있는 도로의 청사진을 보았다. 꽃과 잔디, 나무들이 서로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청사진의 모습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었다. 나는 이것을 보고 수행이 도로공사와 매우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입문한지 10년이 넘었지만, 과거를 회상해보면 나는 꾸물거리는 달팽이처럼 진보가 느리고 서투른 수

행자였다. 이런 생각이 떠오르자 스승님께 몹시 죄송했다. 이 기회를 빌어 스승님께 기도 드린다. “스승님,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제 신실함을 봐서라도 절 저버리지 말아 주세요!” 그 동안 스승님은 공사 기간 동안의 중화로처럼 혼잡한 나의 내면의 쓰레기들과 나쁜 품성들, 온갖 장애를 인내심 있게 차근차근 없애주셨으며, 나는 스승님의 도움으로 수많은 위험한 장애물들을 가까스로 통과할 수 있었다.

나는 그동안 수행하는 과정에서 미묘한 함정들과 수없이 맞닥뜨렸다. 그러나 다행히도 스승님의 보호와 자비와 사랑으로 어려운 시련들을 견뎌낼 수 있었다. 이제 나의 수행은 많이 좋아졌으며, 머지않아 나도 스승님이 설계하고 완성하신 아름다운 청사진과 같아지리라 믿는다. 그러므로 공사 중인 중화로처럼 조금만 더 혼란을 감수하면 곧 널찍하고 아름다운 도로가 될 것이다.



# 영적인 동물친구 개!

개는 인간의 충직한 친구로서 개의 영웅적인 행동에 대한 이야기도 수없이 많이 전해온다. 하지만 개가 매우 영적이란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들은 깨달은 스승의 높은 진동과 밝은 자장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승의 방문을 예견하기까지 한다. 이번 호 ‘이야기 세상’에서는 스승과 개의 교감에 대한 재미있고 가슴 훈훈한 이야기를 몇 편 소개한다.



## 스승님 주위를 맴도는 개

청하이 무상사 / 1992. 5. 17.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선이 시작된 이후 지난 몇 일 동안, 개 한 마리가 매일 내 집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 개는 매번 일곱 바퀴를 돕니다. 일곱 바퀴를 돕고 나면, 혀를 내밀며 더위를 식히다가 다시 또 돌기 시작하지요. 매일 이렇게 도는데, 나는 그 개가 도대체 하루에 몇 바퀴나 도는건지 모르겠어요. 그 개는 내가 안 보이면 짖어대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있기가 참 괴롭지요. (스승님께서 개 짖는 소리를 흉내내심)(스승님과 대중들 웃음) 일곱 바퀴를 돕고 나서도 나를 보지 못하면 짖는데, 상황에 따라 음 높이가 틀립니다. 지쳤을 때는 “오우!” 하고 낮은 소리로 짖고, 지치지 않았으면 “멍! 멍!” 하고 높은 소리로 짖습니다. (동수: 그 개는 인도 개인가봐요.) 인도 개는 부처 주위를 맴돌지요. 난 처음에 그 개가 배고픈 줄 알고 먹을 것을 주었어요. 하지만 배고픈 게 아니었어요. 아니면 어떻게 배고픈 개가 하루 종일 그렇게 맴돌 수 있겠어요?

그 개는 내 집 주변만 돕니다. 또 아주 절도있게 행동해서 함부로 뛰거나 하지 않고, 일정한 경로를 따라 돕니다. (스승님이 손으로 흉내내심) 그리고 다섯 바퀴

째 돌다 지치면 2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죠. 일곱 바퀴를 다 돌았을 때는 좀 더 오래 쉽니다.

내가 가끔 개에게 “됐어, 이제 그만 돌아!” 하고 말하는데도, 개는 내가 계속 돌라고 한 줄 알고 계속 돕니다. 내가 말을 걸지 않으면, 개는 아주 근엄한 자세로 호법을 씁니다. 이상하게도 그 개는 내 집 주위만 맴돌다가 그 일이 끝나면 내려가지요. 사자들은 그 개가 길 잃은 개라고 생각해서 멀리 쫓아내려고 했었지만, 그 개는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 대신 내 집으로 뛰어들어왔지요. 쫓길 때마다 개는 뛰어 올라와서는 아직 충분히 돌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돌곤 했습니다. 장주들이 쫓아내려고 하면, 개는 그냥 그들을 노려보기만 했지요.

(장주: 제가 호법을 썼을 때 개를 쫓아내려고 하니까, 저를 물려고까지 했어요. 얼마나 사납던지요!)

당신을 물려고 했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그 개가 다 돌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쫓을 수 있겠어요? 그 개의 습관을 몰랐군요. 그 개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려고 했을 거예요. “당신도 그냥 호법 중의 한 사람일 뿐, 아무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은 1급 호법, 나는 3급 호법, 그러니 우린 다를 게 없어요.” (대중 웃음)

그 개는 매번 일곱 바퀴를 돕고 항상 정해진 길로 다니는데, 호법을 서 본 사람들은 잘 알 겁니다. 마치



땅에 줄이 그려진 것처럼 매일 같은 길을 걸어다녔어요. 그리고 내 집 주위만 돌 뿐, 다른 곳은 가지 않습니다. 어쩌면 티베트의 개일지도 모르겠어요. 티베트 사람들도 부처 주위를 원을 그리며 맴돌거든요. 개가 지난 며칠 동안 다른 곳에도 가지 않고 다른 짓도 하지 않고, 매일같이 주위를 맴돌기만 하니 참 이상한 일이지요? 또 시끄럽게 굴지도 않죠. 날 볼 수 없을 때만 짖지요. (스승님이 개 짖는 모습을 흉내내심) 마치 나에게 “스승님, 제가 왔어요!” 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예요. (동수: 스승님께 왔다고 보고하나 봐요) 보고는 이미 충분해요. 그래서 난 “이제 더 이상 보고하지 마. 난 시끄러운 소리를 좋아하지 않아!” 하고 말했어요. 그는 날 볼 수 없을 때만 짖었을 뿐 시끄럽게 짖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리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었어요. 내가 보이면 짖지 않아요. 하루에 한 번 보는 걸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개가 내 방문을 지나갈 때는 내가 거기 있는지 보려고 들어오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날 보려고 문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그냥 집 주위만 맴돌지요. 계속 돌고 또 도는데, 매번 일곱 바퀴를 돌고 나서는 내려가서 쉽니다.

## 순례에 나선 개



스승님이 우리에게 당신 주위를 일곱 바퀴씩 맴도는 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실 때, 마침 그 자리에 있었던 가(柯) 사형이 말했다. “전에 스승님이 신쥬에 오셨을 때, 저희 집에 머무셨는데, 그 때 전에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서너 마리 개들이 우리 때문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하루종일 가지도 않고 그 문에 앉아 있었죠. 주변의 개들은 제가 다 아는데, 그 개들은 본 적도 없고,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쫓아내려고 해도 가지 않고 하루 종일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심지어는 스승님이 외출하시고 난 후에도 문에 앉아 스승님을 기다렸지요. 마치 스승님이 돌아오실 것을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말예요.”

## 스승님께 절하는 개



2000년 5월 한국 영동센터에서 국제선을 끝마친 후, 스승님은 잠시 일본에 머무셨다. 스승님 처소의 한 이웃은 큰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개는 늘 그 집 문가에 앉아 있거나 주변을 돌아다니곤 했다. 하지만 스승님이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즉시 절을 하듯이 배를 땅에 대고 엎드렸다. 물론 스승님의 시자를 볼 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 스승님을 기다리는 축복 받은 개들

한국 서울, 오 미경 사저

1997년 우리가 스승님 집을 샀을 당시, 그 집의 전 주인은 우리에게 개 두 마리를 놓고 갔다. 그 해 겨울, 집을 개조하고 있는 동안 그 개는 강아지를 세 마리 낳았다. 날씨가 매우 추워서 우리는 그들을 개집에서 꺼내 집안에 들이고자 했다. 하지만 우리가 낮설어 서인지 개들은 우리를 두려워했다. 그들은 외부인 뿐 아니라 그들에게 매일 먹을 것을 주는 우리에게도 계속 짖어댔다. 우리는 그들을 잡아보려고 여러 번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개들은 집 뒤편의 숲으로 도망쳐 좀처럼 보이지 않았다.

1998년 5월 스승님이 오시기 전날 밤, 그 개들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리고는 마치 경호원처럼 밤새 현관을 지켰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다음 날 아침 스승님이 오셨을 때, 개들은 정원에 앉아 조용히 스승님을 바라보았다. 낯선 스승님을 보고도 짖지 않다니! 개들은 마치 스승님을 오랫동안 기다려 온 것처럼 보였으며, 스승님이 손을 흔들어 주시자 매우 행복해 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했다. 개들도 무상사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을.



# 탄 선생 이야기

린다 사저, 호주 (원문 영어)



얼마 전, 나는 우연찮게 탄 선생과 그의 딸을 알게 되었는데, 그 후 흥미로운 일들이 일어났다.

내가 처음 탄 양(嬢)을 만난 것은 내 친구 중 하나가 자신의 예술학교에서 일하는 새로 온 교사가 불교인을 만나고 싶어한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 교사는 중국에서 호주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절에 가거나 다른 불교인을 몹시 만나고 싶어했다. 그래서 친구는 그녀에게 내 전화번호를 알려 주었고, 탄 양이 내게 전화 연락을 해왔다. 내가 그녀에게 센터에 대해서 얘기해 주자 그녀는 즉시 그 곳을 방문하고 싶어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데리고 센터에 갔고, 그녀는 거기서 뉴스잡지와 견본책자를 얻었다. 센터를 방문하는 동안 탄 양은 자기 아버지에 대해 얘기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양의 학과 한의학학을 모두 섭렵한 사람으로 화가이자 서예가이기도 하며, 우주의 에너지와 통할 수 있어 많은 난치병들을 성공적으로 치유하고 있다고 했다. 며칠 후 그녀는 내게 전화해서 스승님의 견본책자와 뉴스잡지를 모두 읽었는데, 자신이 복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아버지가 자신을 만나러 곧 호주에 올 거라고 알려 주었다.

그녀의 아버지가 호주에 도착했지만 아직 내가 그를 만나기 전 어느 날, 탄 양이 내게 전화로 그녀의 아버지가 견본책자에 나온 스승님의 사진을 보고서는 그가 젊었을 때 예시로 본 모습이란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내가 탄 선생을 만났을 때, 그는 자신 또한 영적 스승으로 중국 본토와 포모사에 많은 제자들이 있으며, 호주에 온 지 며칠 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제자가 몇 명 생겼다고 말했다.

그는 지혜안으로 내면의 빛을 관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소리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고 했다. 다음은 그가 스승님께 전하고 싶어하는 내용이다.

“제 스승께서 돌아가시기 전 말씀하시기를 제가 앞으로 어울락 출신의 스승을 도와 흥법을 하며 진리의 샘을 세상에 전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제 손을 저의 지혜안에 갖다 대게 한 후, 그 어울락 스승의 모습을 비전으로 보여주셨지요. 벌써 삼, 사십 년 전 일로써, 그 당시 보았던 스승은 아직 어린 소녀의 모습이었는데, 이제 그 소녀가 바로 스승님이라는 걸 알고 나니, 어서 뵙고 싶군요. 정말 중대한 일이니까요.”



발행 : 2001년 2월호 <뉴 휴먼 단>  
한국 서울 발행 (원문 한국어)

제목 : 즉각적인 깨달음에 이르는 길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즉각적으로 깨달음에 이른다’는 것은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가. 인류 역사를 통해 많은 구도자들이 깨달음을 추구했으나, 험난한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에 이른 자는 많지 않았다. 결국 깨달음은 고행 없이는 도달할 수 없는 높은 경지라고 인식되어서, 범인(凡人)들은 구도의 과정을 ‘자신과는 인연이 먼’ 세계의 일로 치부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칭하이 무상사는 보편적이고 쉬운 명상법을 통해 ‘누만 감으면’ 자신의 본성을 만날 수 있고, ‘즉각적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 삶과 수행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칭하이 무상사와 관음법문은 1992년에 처음 한국에 알려졌고 1993년 서울, 부산의 강연을 계기로 국내에도 관음법문과 완전채식을 하는 인구가 부쩍 늘어 현재 입문자의 수가 수천에 달하고 있다. 전국 주요 도시에 11개의 명상센터가 세워져 있어 매주 일요일에 입문자와 예비입문자의 모임이 진행되지만, 돈을 받거나 종교를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는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쉽게 채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서울 포이동에 SM 채식부페와 채식전문점 베지러브를 운영하고 있다.

###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회원 최사형(베지러브 근무)과의 인터뷰

#### 언제 입문했나?

입문한 지 5년 정도 됐다. 입문 후 완전채식과 하루 세 시간 정도의 명상을 하고 있다. 우리 단체에서는 삶과 분리된 수행을 고집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며 수행을 한다.

#### 입문 후 변화된 점은?

성격과 가치관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대인관계가 소극적이었고, 우울한 감정에 빠질 때가 많았다. 명상수행을 통해 사물에 대한 자비심이 차오르기 시작했으며, 타인에 대한 이해의 폭이 훨씬 넓어졌다. 세상을 밝게 보고, 보편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 채식 전문점에 대해 설명해 달라.

‘베지러브’는 국내에서 몇 안 되는 채식 전문점이다. 일반인들이 채식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 구할 수 있는 모든 채식 제품을 구비하고 있다. 밀가루의 글루텐으로 만든 밀고기나 채식햄, 채식 계란, 버섯과 글루텐을 섞어 만든 햄버거, 샌드위치, 피자 등이 있고 일반 제품 중에서도 동물성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것을 홍보하고 판매한다. 5만 원 이상일 경우 택배주문도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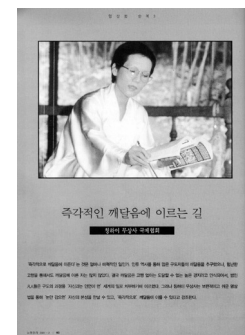
#### 칭하이 스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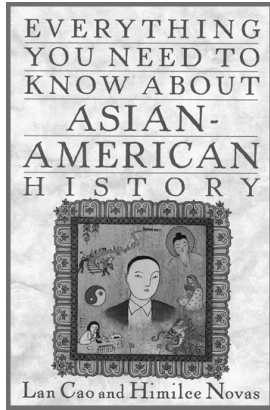
공기처럼 있어도 없는 듯, 없어도 있는 듯 친근하게 느껴진다.

####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은?

수행은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는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앞으로 수행적인 측면에서나 공익을 위해서나 태평농법을 이용한 유기농을 실천하고 싶다.

클 전채연  
(ccy@mewhuman.org)  
사진 김명순





## 아시아계 미국인 역사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

저 자 : 란 카오, 히밀스 노바스  
발행처 : 미국 팅겐사  
발행일 : 1996년 4월 발행  
ISBN : 0452273153  
원 문 : 영어

\*\* 이 책 222-223 페이지에 스승님이 소개되어 있음

### 칭하이 무상사는 누구인가?

베트남에서 출생하고 1993년 미국 명예 시민이 된 칭하이 무상사는 전 세계 무수한 구도자들을 지도해 온 영적 지혜의 상징이다. 그녀는 특정 종파에 속하지 않는 관음법문이라는 명상법을 가르치며, 그 센터는 전 세계에 퍼져있다. 칭하이 무상사는 4개 대륙에서의 재난 구조 노력과 인도주의 정신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이러한 업적으로 1993년 세계 평화상과 1994년 세계 영적 지도자 상을 수상했다. 칭하이 스승은 세계 지도자들과 여러 차례 영예로운 만남을

가졌으며, 뉴욕과 제네바 유엔의 초빙으로 수 차례 강연을 가졌다.

칭하이 스승은 모든 종교는 만인의 공통적인 보편적 형제애, 도덕적 용기와 마음의 정화 등 같은 진리를 가르친다고 말한다. 칭하이 스승의 관음법문 명상법은 고대 경전에 언급된 “즉각 깨달음”의 열쇠로 알려져 있다. 관음법문 명상법의 핵심은 “내면의 음류”를 침묵 속에 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보다 높은 의식수준을 체험하여 깨달음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



스승님의 농담

### 신사 중의 신사

칭하이 무상사 / 1999. 10. 1. 미국 플로리다 (원문 중국어)

두 남자가 골프를 치고 있었어요. 그 중 한 명이 아주 멋진 자세를 취하려다 때마침 장례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는 즉시 자세를 고쳐 몸을 바로 세운 후 모자를 벗어 가슴에 얹고는 숙연한 자세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 행렬이 멀리 사라진 뒤에야 다시 골프를 시작했어요.

옆에 있는 남자가 그 모습을 보고는 칭찬을 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신사이시군요. 정말로 사려 깊고 예의가 바르시네요.”

그러자 ‘신사’가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이것은 30년 동안이나 결혼 생활을 함께 한 우리의 마지막 의식인 걸요!”





2001년 3월 4일 인도네시아 자바포스트지 (원문 인도네시아어)

# 비디오 영상 강연회, 인산인해를 이루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인도네시아 센터가 어제 관음법문에 대한 비디오 영상 강연회를 개최했다. 비록 칭하이 스승이 직접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이 강연회에는 수백 명이 참석했다. 2시간 이상 계속된 강연회에서 모든 참석자들은 상영된 비디오를 주의 깊게 시청했다.

칭하이 스승의 사진과 책들이 천상의 옷과 그림 등의 다른 예술 창작품과 함께 강연장 입구에 전시되었다. 칭하이 스승의 제자 한 명은 “비록 스승님께서 육신으로 강연장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스승님의 화신은 어디에나 존재하신다”고 기자에게 자신있게 말했다. 강연회에 참석한 청중들은 칭하이 무상사의 카리스마 깊은 호소력에 감명을 받고 강연장을 떠났다.

방편법 신청자들을 심사하는 동안, 호법은 “채식을 맹세한 사람만이 방편법을 배울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강연장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며 기자 한 명이 장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이 같은 요구가 채식주의를 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은 조건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저 없이 방편법을 신청했다. 관음법문에 입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간 채식주의를 해야 한다. 한 입문자는 입문을 위한 첫째 조건이 살생을 금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입문자들은 오계를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데, 그것은 살생하지 말 것, 거짓말하지 말 것, 흠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술 마시지 말 것 등이다. 불살생의 첫번째 계율은 평생 채식주의를 뜻하며, 유제품은 먹을 수 있다. 방편법 수행자는 한 달에 최소한 10일간 채식주의를 하여야 하며, 다른 때에도 최대한 육식을 적게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입문자들은 보다 높은 깨달음의 경지로 자신들을 올리기 위하여 매일 2시간 30분씩 명상해야 한다.

## 근심 없는 삶을 영위하는 제자들

칭하이 무상사는 종종 깨달음을 얻는 것이 어렵지 않다고 한다. 또한 즉각 깨달음을 얻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점이 칭하이 스승의 가르침 중 가장 마음을 끄는 부분이다. “우리는 입문 후 매일 신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은 어디에나 존재합니다”라고 칭하이 스승은 말한다.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진 제자들이 칭하이 스승의 가르침에 강하게 이끌려 따르고 있으며, 칭하이 스승은 제자들에게 자비와 사랑의 모범을 몸소 보여 주고 있다. 즉, 사랑의 실천으로 널리 알려진 마더 테레사 수녀처럼 칭하이 스승도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은 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인도주의적 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3년 전에 입문한 제자는 입문식 동안 관음법문 수행자들은 눈부신 빛을 보기도 하며, 화목한 가정과 근심걱정 없는 안정된 삶을 즐길 수 있다고 말했다.



## 새로 나온 칭하이 무상사 오디오 테이프

### 〈영문판〉

E78 (4개)

#### 깨달음과 무지

아시아 2000 사랑의 바다 순회강연  
2000년 5월 1일 네팔 카트만두 강연

#### 환상은 현실의 반영

아시아 2000 사랑의 바다 순회강연  
2000년 5월 3일 필리핀 마닐라 강연

#### 지혜와 집중

아시아 2000 사랑의 바다 순회강연  
2000년 5월 7일 일본 도쿄 강연

#### 삶은 영원히 지속된다

아시아 2000 사랑의 바다 순회강연  
2000년 5월 8일 한국 서울 강연

### 〈중문판〉

CL22 (6 개)

#### 본성을 인식해야 진정 행복하다 (1)(2)

아시아 2000 사랑의 바다 순회강연  
2000년 5월 2일 홍콩 강연

#### 내면의 자성에 귀기울이기 (1)(2)

아시아 2000 사랑의 바다 순회강연  
2000년 5월 5일 포모사 타이베이 강연

#### 영혼과 지성의 교류 (1)(2)

2000년 5월 6일 포모사 타이베이 중앙연구원 세미나

### 〈영문판〉

ER 20 (5개)

#### 생활의 공허함을 넘어

태국 방콕 국제선육 1999년 12월 27/30

#### 함께 하는 날

태국 방콕 국제선육 1999년 12월 27/28

#### 어린이의 마음

태국 방콕 국제선육 1999년 12월 29일

#### 자연스런 흥법

태국 방콕 국제선육 1999년 12월 30일

#### 천사의 미소

태국 방콕 국제선육 1999년 12월 30일

E77 (4개)

#### 영혼들의 재결합 (1)(2)

아시아 2000 사랑의 바다 순회강연  
2000년 4월 27일 뉴질랜드 오클랜드 강연

#### 빛의 계승자

아시아 2000 사랑의 바다 순회강연  
2000년 4월 29일 스리랑카 콜롬보 강연

#### 사랑은 삶의 진정한 본질

아시아 2000 사랑의 바다 순회강연  
2000년 4월 30일 말레이시아 팔라룸푸르 강연



단신

## 인터넷으로 보는 스승님의 견본책자

많은 사람들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칭하이 무상사의 약력과 강연 발췌본, 관음법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담은 즉각 깨닫는 열쇠 견본책이 50개국어 판으로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원하는 분은 다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십시오.

<http://www.Direkter-Kontakt-mit-Gott.org/booklet> (오스트리아)

<http://www.Godsdirectcontact.org/sample/> (미국)

<http://www.Godsdirectcontact.org.tw/eng/publication/sample/sample.htm> (포모사)

이 사이트들을 통해 인터넷으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한 PDF 형식의 파일을 다운받아 개인용 컴퓨터를 통한 출력도 가능합니다. (다운을 받는 자세한 설명은 위의 두 번째 사이트에 있습니다.) 단, Acrobat Reader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없는 분들은 위 사이트들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편지는 손하노커 사형이 세계를 여행하며  
우리에게 보내온 글이다. 손 사형의 스승님의 위대한  
힘에 대한 깨달음과 헌신, 감수성을 읽노라면 큰 기쁨  
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스승님과 관음법  
문을 발견하며 느낀 행복을 손 사형의 동의를 얻어 이  
편지를 뉴스잡지의 독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스승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며

호주 바이런 만, 노던 리버스에서  
레이와 줄리

# 수행의 기쁨을 나누다

(원문 영어)

레이와 줄리에게

이제야 연락이 되는군요. 요즘 어떻게 지내나요? 모두 잘 지내는 것 같군요. 이 명상법은 정말 놀라워서  
모든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가운데 스승님의 사랑이 느껴지지요. 저는 매일 세 시간씩 명상하려고  
하는데, 때로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는 그걸 만회하려고 두 배로 하곤 해요.

여기 학교생활은 아주 바빠요. 지난 2주 동안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저는 워싱턴에서 있었던 대규  
모 항의시위를 담았어요. 영화 수업 발표숙제였거든요. 하루 종일 편집한 끝에 겨우 일을 마칠 수 있었어요.  
수업 시간에 각자 자신의 작품을 발표하는데, 내 작품을 발표했을 때 모두가 저에게 박수를 치며 칭찬을 해  
서 정말 당황했어요. 와! 내가 정말 놀라운 작품을 만들어 냈다는 걸 깨닫고는 너무나 놀랍고 떨리더군요.  
수업이 끝나고 많은 학생들이 축하를 해줘서 흥분이 되기도 했지만, 행여 에고가 높아질까봐 걱정도 되었어  
요. 그래서 이건 스승님이 하신 작품이라고 자신에게 되뇌었지요.

명상이 우리에게 많은 이로움을 준다는 것이 느껴져요. 저는 이번 생에 수행을 완전히 끝마치고 싶어요.  
정말 그런 느낌이 여실하지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 안배로 이 기술에 매여 있는 것 같아요. 이 기술을 통해  
서 다른 사람들을 돕거나 매체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라왔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내 에고는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매일 이 에고와 싸  
우고 있어요. 에고가 사사건건 장애가 되고 있으니까요. 나는 내가 해야 할 이 수행을 알고 나서 이미 내 삶  
에는 혼란이란 없으며, 모든 일은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란 걸 알게 되어 정말 운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  
서 모든 것에 대해 스승님께 감사하지요.

아, 이제 그만 줄여야겠군요.

안부와 사랑을 전하며

손으로부터



# 엘살바도르 지진 이재민에게 신의 사랑을 나누다

코스타리카 구조 활동팀 보도 (원문 스페인어)

2001년 1월 13일 새벽 2시 경, 강력한 지진이 남미 엘살바도르를 기습했다.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에서는 즉시 식량 공급과 가족 재건축을 위한 구호 기금을 미국 산 호세와 LA 센터를 통해 보냈다. 구호금을 담당하고 있던 코스타리카 동수들은 산살바도르 동수들과 인적 물적 자원 협력단을 조직하여 지진 이재민들에게 스승님의 사랑과 관심을 전달했다.

동수들은 라리마, 라쿰브르, 산이시드로와 벽지 두 곳을 비롯한 타마니크 엘 조보의 257 가정을 방문하여 도움을 주었다. 국제 원조가 닿지 않는 여러 재해 농촌 지역이 구호 대상지 일순위로 지정되었다. 우리는 먼저 타마니크 지역의 마을을 방문하여 피해자들의 실태를 파악한 후 여러 그룹으로 나누어 일을 분배했다. 신의 은총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구호 물자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됐다. 이런 시기 적절한 물질적 도움이 당시에는 큰 환영을 받지만, 피해자들에게는 영적 위안이 오랫동안 가슴깊이 남을 것이라는 걸 깨달은 우리는 그 지역 모임에서 스승님의 비디오 강연을 열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방편법을 배우고자 했다. 우리는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한 사람들의 압도적인 관심에 놀라움과 기쁨을 동시에 느꼈다.



지진으로 인해 많은 집들이 폐허로 변했다. 비닐 천막과 천으로 만든 임시 거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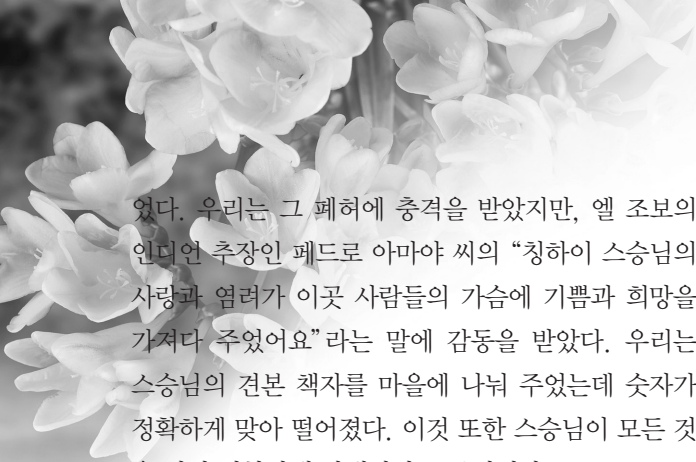


## 엘 조보

현지를 조사해 보자 이재민들에게는 식량과 건축자재들이 시급히 필요했다. 일부 사형들이 산살바도르 도매상에서 건축자재를 구해 오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엘 조보의 이재민을 방문해 강연회를 준비하기로 했다. 우리는 지리에 익숙지 않아서 버스를 네 번이나 갈아타고서야 겨우 타마니크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는 원래 일을 마치고 산살바도르로 돌아가 다른 동수들과 합류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오후 4시 이후로는 산살바도르행 버스가 없다는 말을 했을 때 크게 당황했다. 우리에게 얼마 되지 않는 돈과 라면만 있을 뿐, 다음 행선지에 도착할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우리는 무소부재한 스승님의 보호력을 느끼고 마음이 평온하고 안정되어졌다. 우리는 신이 모든 것을 안배해 놓은 듯한 수녀원에 도착하게 되었다. 바바라 듀본 수녀원장은 우리를 친절하게 맞이하며 일을 할 수 있는 연장들을 제공해 주었고, 오후에는 우리가 엘 조보 지역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차를 내주었다.

지진으로 인해 엘 조보의 기본 시설들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집과 재산을 잃은 슬픔에 빠져 있



었다. 우리는 그 폐허에 충격을 받았지만, 엘 조보의 인디언 추장인 페드로 아마야 씨의 “칭하이 스승님의 사랑과 염려가 이곳 사람들의 가슴에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어요”라는 말에 감동을 받았다. 우리는 스승님의 견본 책자를 마을에 나눠 주었는데 숫자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다. 이것 또한 스승님이 모든 것을 미리 정확하게 안배한다는 증거였다.

다음날 아침, 바바라 수녀는 마을의 행정관인 글라디스 올라이솔라 드 세라노를 소개시켜 주었다. 그녀는 지역 농부들의 지도자였으며 소박한 생활을 영위하는 유명한 젊은 여성이었다. 그녀는 스승님의 견본 책자를 보자마자 스승님의 가르침에 대해 더 알고자 했으며 언젠가 스승님이 이 곳을 방문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했다. 그녀는 신의 강렬한 사랑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통해 전달되는 것을 느꼈으며 방편법과 채식 요리를 가르쳐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녀는 훌륭한 신의 도구였다. 우리에게 전화와 타자가 있는 사무실과 작은 트럭을 빌려줘서 우리는 다른 마을 지도자와 언론사와의 연락하여 엘살바도르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할 수 있었다.



## 라 리마

엘 조보에서 차를 타고 라 리마로 이동하면서 동수들은 라 리마 지역 지도자들과 구호 물자의 분배와 스승님의 강연에 대해 의논했다. 마침 지역 초등학교에서 가족들이 이 비극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는 주는 모임이 계획되어 있었다. 이 모임은 주민들에게 스승님의 견본책자를 나눠 주고, 다음 날 강연회에 초청하기 위한 좋은 기회였다.

자정이 되어서야 구호 물자들의 분배가 끝났다. 모두들 쉬임 없이 낮잠도 안 자고 일했는데도 누구도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다. 우리는 수녀원으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나눠 줄 식량을 준비했는데, 기쁘게도 몇몇 수녀들과 젊은 뜻있는 사람들이 식량 포장을 도와주었다. 정말 사랑과 행복이 가득했던 작업이었다.



## 비디오 강연

천 명이 넘는 타마니

크 주민들이 이 큰 행사에 참가했다.

행사장은 스승님의 사진과 “엘 조

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쓰

여진 노란 현수막

과 오색 풍선으로 아름답게 꾸며졌다. 절박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절망하는 기색 없이 오히려 “칭하이 무상사님은 우리에게 행복과 빛과 희망을 가져다 주셨습니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라리마의 농부들도 “칭하이 무상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쓰여진 포스터를 갖고 행사에 참가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탬버린과 기타 연주자들과 동반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운 음악을 선사했다. 타마니크 초등학교 학생들과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엘살바도르 국가를 합창했으며, 행사장은 평화와 화합의 기운이 충만하여 모든 사람들의 얼굴은 기쁨의 빛이 흘러 넘쳤다!

4백여 명의 어린이들이 질서 정연히 줄을 서서 가피물을 받았다. 가피물에는 엘살바도르의 한 사제가 만든 작은 천주머니에 사탕과 과자가 들어 있었다. 식량을 배분하자 참석자들은 질서 있게 행동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도착하자 식량이 모자랄까 걱정되기 시작했다. 다행히 모든 사람들이 식량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분배 책임자인 한 사제가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신과 스승님께 식량 숫자를 늘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이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사람들에게 식량 주머니를 하나씩 나눠 주는데 자루에 들은 음식은 끝이 없는 것 같았다. 크게 놀란 우리는 모든 것이 스승님의 사랑의 발현이며, 또한 예수님 당시 그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빵 한 조각을 바구니에서 꺼낼 때마다 새 빵이 바구니에 생겼던 역사적인 기적



집을 잃은 주민들의 얼굴에서 절망의 기색을 엿볼 수 있다





이 재현되었음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한편, 행사장의 다른 한 쪽에서는 한 사자와 지역 지도자들이 트럭에 가득 실린 양철 지붕재료와 건축 도구들을 나눠 주었다. 스승님의 사랑과 축복 아래 모든 일이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 라쿰브르는 잊혀진 것이 아니다

비디오 강연과 오락 프로그램, 식량 분배가 모두 끝났지만, 아직도 상당한 양의 마른 찰옥수수가 남아 있었다. 신의 또 다른 안배가 있었던 것이다. 바로 엘 조보 재건축 위원회에서 남은 식량을 인근 라쿰브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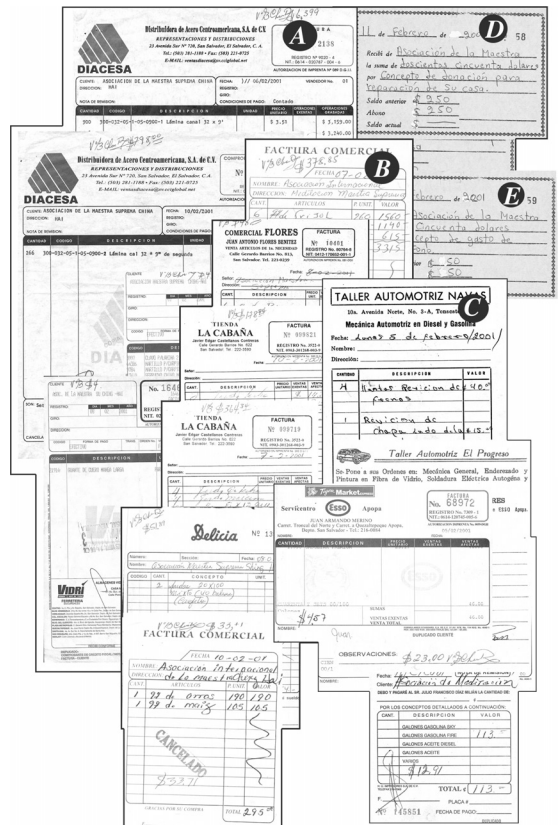
에 보내달라고 요청해 온 것이었다.

지방 정부의 차량 지원으로 우리는 라쿰브르로 도착해 마른 찰옥수수와 건본책자를 나눠 주었다. 도착하자 부서진 가옥들의 잔해가 보였으며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을 잃어 나무 판자와 비닐로 지붕을 얹은 임시 거처에 몸을 의지하고 있었다. 그 지역 학교는 교실이 세 개 만 남았는데, 그나마 이재민들이 가득 차 있었다! 지진으로 인해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되었다. 이 대참사로 인한 고통의 현장을 목격한 우리는 슬픔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도 신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 스승님의 고귀한 사랑을 베행한 사람들과 나눌 수 있도록 안배하셨다.

## 엘살바도르 지진 구호활동 지출 내역 (단위 : 미화 \$)

항	목	수입금액	지출금액	부록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센터의 기부금		5,000		
미국 LA/시애틀/ 휴스턴 센터의 기부금		4,000		
코스타리카 센터의 기부금		323.20		
건축자재 구입: 지붕, 망치, 톱, 못, 장갑			7,652.50	A
식량 구입: 쌀, 콩, 옥수수, 분유, 전분, 사탕, 과자			1,055.53	B
교통비: 기름, 차량 유지비			65.17	C
집을 잃은 두 동수를 위한 지원비			500	D
전화요금			50	E
합	계	9,323.30\$	9,323.30\$	

스승님이 구호기금으로 10,000달러를 별도로 기부하심  
지출 상세 내역은 추후 뉴스잡지 게재 예정







## 감사 편지 (원문 스페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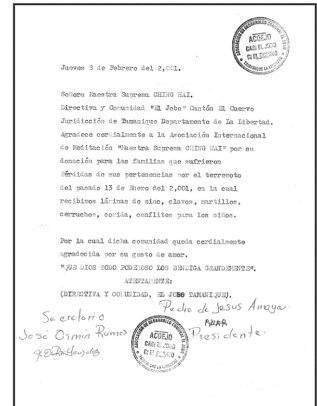
엘 조보 지역 개발 협회, 2001년 2월 8일

칭하이 무상사님께,

자유지역 타마니크 주 엘 조보 주민과 대표자들은 2001년 1월 13일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저희들에게 구조단을 보내 도와주신 데 대해 진실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귀 단체의 사랑의 성금으로 가구톱 등, 모든 건축 도구, 식량을 구입할 수 있었으며, 어린이들은 사랑과 과자를 받았습니다.

저희 지역 공동체는 귀하의 자비로운 사랑의 표현에 대해 심심한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신의 가호가 함께 하시길 .....



타마니크 주 엘 조보 지역 위원회

회장 페드로 아마야

비서 호세 오스민 라모스 올림

## 엘살바도르 자유지역 타마니크, 2001년 2월 7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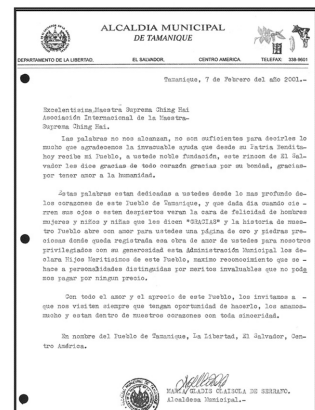
존경하는 칭하이 무상사와 국제 협회 여러분께

귀하의 소중한 도움에 저희 주민들은 어떻게 감사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이 구석에서 귀 단체에 진심 어린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또한 귀하의 인류에 대한 고귀한 사랑과 친절에도 감사 드립니다.

이 편지는 타마니크 주 주민들이 귀하께 전하는 진정한 감사의 글이며, 귀하는 언제든지 남녀노소 지역 주민들로부터 “감사합니다” 라고 미소짓는 얼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귀하의 자비로운 활동을 소중히 여겨 그 사랑을 영광스런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억할 것입니다.

귀하와 같은 관대한 분들을 알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정부는 귀하를 명예시민으로 모셔 귀하와 같은 훌륭한 분에 대한 저희의 가장 큰 경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이 외에는 달리 귀하의 귀한 공덕에 보답할 길이 없군요.

저희 주민들은 사랑과 감사를 담아 귀하가 언제든지 방문하시기를 초청합니다.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자비로운 구호활동은 영원히 저희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마리아 글라디스 올라이솔라 드 세라노

엘살바도르 자유지역 타마니크 주 행정관 올림



사랑의 실천

미국 뉴저지에서 알려진 소식

# 인도 구자라트 지진 피해 구호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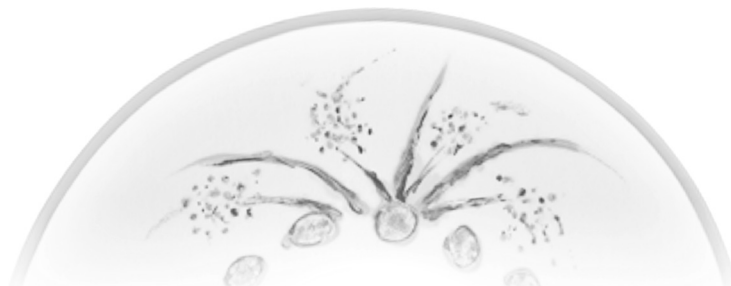
[뉴저지] 2001년 1월 26일 리히터 7.9의 지진이 인도 구자라트를 강타하여 약 2만여 명이 사망하고 수만 명이 집을 잃었다. 이 재해 소식을 듣고 뉴저지 센터는 뉴욕과 뉴저지, 펜실바니아 3개 주 동수들에게 구호기금을 요청했다. 우리는 총 미화 24,408달러를 모금하여 인도 개발구호기금(IDRF)에 전달했다. IDRF의 총재 비노드 프라카시 박사는 스승님이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 단체를 대표해 감사 서한을 보내왔다.

인도 구자라트 지진 피해자들을 위해  
인도 개발 구호 기금에 기부한 미화  
\$24,408의 영수증 3장

칭하이 무상사의 사랑에 대한 IDRF  
의 감사를 전한 비노드 프라카시 총  
재의 편지



칭하이 무상사 TV프로그램



## 칭하이 무상사의 ‘예술과 영성’ 의 세계

지역 : 포모사 (동남아시아, 중국 본토, 그리고 위성 방송으로 미국도 시청가능)

채널 : 32번, ET TV

내용 : 칭하이 무상사의 강연과 칭하이 무상사 국제협회의 전 세계적 활동보고 비디오 상영

시간 : 2001년 5월 6일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1시 ~ 2시 사이

칭하이 무상사에 대한 다른 프로그램의 편성표를 원하시는 분은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spiritual-discovery.org/events/tv.htm>



# 집중과 전문

칭하이 무상사/ 1991. 6. 28. 포모사 시후 (원문: 중국어)

여러분 대부분이 일을 잘 하지 못하는 것은 집중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직업만 가질 수 있지요. 의학을 공부하여 의사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좋은 의사가 되는지 여부는 집중력이 있는지, 사랑이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직업에서조차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사업가나 기술자 등 한 가지 직업의 일만 하고, 그나마 훈련이 쌓여야 나아지지요. 한 가지 직업이어도 꼭 잘하는 건 아니어서 어떤 의사는 다른 의사들보다 더 성과가 좋고, 어떤 건축가는 다른 동료들보다 더 훌륭한 업적을 남깁니다. 그들의 집중과 지혜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왜 깨달은 스승은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까요? 그건 그들이 항상 집중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 자신의 모든 신구의를 그곳에 집중하며, 동시에 여러 곳에 집중할 수도 있어 천백억 화신을 나투게 됩니다. 한편으론 춤추면서 다른 한편으론 천백억 화신을 나눌 수 있는데, 이는 그들의 마음이 전혀 분산되지 않는 절대 집중의 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태양이 아무 것도 소모하지 않는 채 세상 곳곳을 비추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양초는 한 곳만 비출 수 있고, 그나마 그 빛은 잠시 동안만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행자와 일반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왜 우리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까요? 그건 우리가 집중하기 때문이죠. 왜 우리는 매사를 남들보다 더 완벽하게 잘 해내며, 때에 따라선 전문가보다 더 잘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항상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든 분산되지 않고 온 마음을 그곳에 둡니다. 내가 다른 일을 생각할 때조차 나의 일부만이 그 생각을 하며, 수많은 화신으로는 동시다발로 많은 일들을 처리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훈련받아 습관이 되어있지 않다면, 집중해서 일할 수 없지요. 여러분이 일을 잘 하는 건 집중해서 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전업(專業)이기 때문입니다. 전업과 집중은 다른 것입니다. 전업이란 것은 특정 일만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나마 꼭 잘 하는 건 아니고, 습관이 되어야만 잘 할 수 있지요.

우리 수행자들이 수행을 하고 보다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 전문 직업인이 아니어도 일을 잘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전문가보다 더 잘 할 수도 있는데, 마음이 지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더 잘 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지혜가 생기면,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지혜는 온 우주를 비추고 창조할 수 있으므로, 지혜가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필요한 일이라면, 지혜는 해냅니다. 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내버려두지요.



### \*\*\*아프리카\*\*\*

★ 베닌	센터	229-303-982 smbenin@yahoo.fr
★ 카메룬	센터	237-865026 smcameroon@yahoo.com
★ 가나	센터	233-27-607-528 smghanac@yahoo.com
★ 케냐	센터	254-55-00-46 atmoske@yahoo.com
★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 타운 센터	27-83-952-5744 capetowncentre@yahoo.com
터반 Mr. & Mrs. Suresh Patel		27-31-262-5111 surindie@intekom.co.za
요하네스버그 Mr. Gerhard Vosloo		27-11-880-0349 ghvosloo@mweb.co.za
	Mr. Gilbert Kamgain	27-82-754-3840 gkamgain@yahoo.com
	Mrs. Tracey Ho	27-11-6402085 sahjbcenter@pchome.com.tw
★ 토고	팔리메 센터	228 410 948
	로메 센터	228 222864 smtogo@yahoo.com
	Mr. David Chine	228 215551
★ 우간다	캄팔라	Mr. Samuel Luyimbaazi 256-7764-9807 lukiise@yahoo.com
★ 모리셔스	포트루이스	Mr. Liang Dong Sheng 230-208-1758 smmaurice@email.com
		Ms. Josiane Chan She Ping 230-242-0462 essence@intnet.mu

### \*\*\*아메리카\*\*\*

★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	Ms. Mabel Alicia Kaplan 54-11-4-545-4640 mak@sminter.com.ar
★ 볼리비아	산타 크루즈	Mrs. Adalina da graca Munoz 591-337-2039 adamunoz@hotmail.com

트리니다드	Mr. Wu Chao Shien	591-4625964
★ 브라질	벨렘	Mr. Wei Cheng Wu 55-91-223-9414
	레시페	Ms. Salma Casierra Alvarez 55-81-3262912
상 파울루	센터	55-11-5579-1180/3884-3155
	연락인 사무실	55-11-227-4690/228-7029 brcenter@hotmail.com
★ 칠레	라세레나	Mr. Esteban Zapata Guzman 56-51-295992 ezapata@entelchile.net
	산티아고	센터 56-2-6385901 chilecenter@hotmail.com
	연락인 사무실	56-2-6389229
★ 콜롬비아	보고타	Mr. & Mrs. Jose Guzman Alonso 57-1-2261245
★ 코스타리카	산호세	센터 506-2200-753
	Ms. Laura Chen	506-387-4516 laurachenr@hotmail.com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Mr. Edith Sagrario Ochoa 504-2250120
★ 멕시코	과나후아토	Mr. & Mrs. Jose Luis Sanchez Vargas 52-4-7436120
	멕시코칼리	Ms. Sylvia Lagrange 52-65-684575 quanyin@telnor.net
	멕시코DF	센터 52-5-752-7472/5639-3506 kamel@avantel.net
	멕시코 주	연락인 사무실 52-5-852-1256 tecenter@ragnatela.net.mx
	몬테레이	Mr. Roque Antonio Ledl Suffo 52-8-3778387 mttycenter@starmedia.com
★ 니카라과	마나과	Mrs. Pastora Valdivia Iglesias 505-248-3651 roxanabett@hotmail.com
★ 파나마	센터	507-236-7495
	Ms. Maritza E.R. de Leone	507-260-5021 mrleone@hotmail.com
★ 파라과이	C.D. 이스트	Mr. Zhi-Lu Tsao 595-61-502034 jscmike@fnn.net
★ 페루	쿠스코	Ms. Patricia Kross Canal 51-84-232-682 cuscocentro@yahoo.com
	리마	센터 51-1-4716472





lvalencia@terra.com.pe

Mr. Edgar Nadal &amp; Ms. Teresa de Nadal 51-1-4667737 캘리포니아 :

chinghailimaperu@hotmail.com \*로스앤젤레스:

Mr. Victor Carrera 51-1-2657429 센터 1-909-674-7814

푸노 Ms. Mercedes Rodriguez 51-54-353039 Mr. & Mrs. Tsung-Liang Lin 1-626-914-4127  
punocentroperu@yahoo.es tllin54@hotmail.com

트루히요 Mr. Luis Rebaza 51-44-260871 Mr. & Mrs. Dong Phung 1-626-284-9994  
larv@terra.com.pe SanGabriel99@hotmail.com

## ★ 살바도르

산 살바도르 Mr. Manuel Menjivar 503-216-9413 Ms. Tina Polny 1-714-960-4518/960-4568  
quijano\_manuel@yahoo.es qin-na.polny@mindspring.com

\*새크라멘토 Mr. & Mrs. Hieu De Tu 1-916-682-9540

## ★ 트리니다드 아일랜드

Mr. Ray Alibocus 1-868-637-1054 \*샌디에이고 센터 Saccenter.ca@usa.com  
alibocus@tstt.net.tt 1-619-280-7982

quanyinsd@juno.com

## ★ 캐나다

에드몬톤 Mr. Brian Hokanson 1-780-444-6568 Mr. & Mrs. Tran Van Luu 1-619-475-9891

Mr. & Mrs. Dang Van Sang 1-780-963-5240 \*샌프란시스코 Mr. & Mrs. Tang Thi 1-619-268-8651

dangvansang@hotmail.com 센터 KHOALUONG@aol.com

킹스턴 Mr. Quang Thanh Le 1-613-384-3295 Mr. & Mrs. Khoa Dang Luong 1-415-753-2922

런던 센터 1-519-438-3702 Mr. & Mrs. Dan Hoang 1-415-333-9119  
uniself@yahoo.com sfcenter@hotmail.com

몬트리올 센터 1-514-277-4655 \*산 호세 Ms. Sophie Lapaire 1-650-988-6500

Ms. Euchariste Pierre 1-514-277-2717 Sophie.Lapaire@eng.sun.com

p\_euchariste1@sympatico.ca Mr. & Mrs. Edgar Shyuan 1-408-463-0297

Mr. Hung The Nguyen 1-514-494-7511 Edgar-Teresa@worldnet.att.net

nguyenthehung40@hotmail.com Mr. Loc Petrus 1-510-276-4631

Mr. & Mrs. Nai-Chi Hsu 1-450-647-4871 petrusl2k@earthlink.net

오타와 Mr. Le Lam 1-613-260-1698 Mr. Jim Su 1-408-253-8516

lam.le-quanyin@home.com sumajim@aol.com

Mr. Armand Laplante 1-613-745-6050 Mr. James Kiet Le 1-408-262-8233

토론토 센터 1-416-503-0515 James\_Le@adaptec.com

Ms. Diep Hoa 1-905-897-0650 콜로라도 : Ms. Victoria Singson 1-303-986-1248

Mr. & Mrs. Lenh Van Pham 1-416-282-5297 torahi@juno.com

hiepham@home.com 플로리다 :

밴쿠버 Ms. Li-Hwa Liao 1-604-541-1530 \*케이프 코랄

jsung@aicompro.com Mr. & Mrs. Thai Dinh Nguyen 1-941-458-2639

Ms. Sheila Coodin 1-604-739-6758 Ms. Trina L. Stokes 1-941-482-7542

sheila@prismnet.bc.ca tls77@aol.com

Ms. Nguyen Thi Yen 1-604-581-7230 \*올랜도 Mr. Michael Stephen Blake 1-407-333-0178

ekalbekim@yahoo.com

## ★ 미국

애리조나 : 센터 1-623-581-0725 조지아 : 센터/ Bhiksuni Chan Mo 1-770-936-9926

ArizonaCtr@aol.com GeorgiaCnt@aol.com

Mr. & Mrs. Kenny Ngo 1-602-404-5341 Mr. James Collins 1-770-934-2098

Ms. Kim Dung Thi Nguyen 1-404-292-7952

아칸소 : Mr. Robert Jeffreys 1-501-253-8287 하와이 : 센터 1-808-735-9180



## 전세계 연락처

	hawaiictr@hotmail.com		anawarskas@hotmail.com
	Mrs. Dorothy Kaomi Sakata 1-808-988-6059	뉴욕 :	
	DorothySakata@aol.com		Mr. & Mrs. Zhihua Tung 1-718-837-4884
일리노이 :	Mr. tran, Cao-Minh Lam 1-773-506-8853		dong@phys.columbia.edu
	caominhlamtran@hotmail.com	*로체스터	Ms. Debra Couch 1-716-256-3961
	Mr. & Mrs. Sang-Yoon Lee 1-773-261-4033		success@coachdebra.com
	ilovesuma@hotmail.com	노스캐롤라이나 :	
인디애나 :	Mr. & Mrs. Duc Vu 1-317-293-5303		Mr. & Mrs. Huynh Thien Tan 1-704-535-3789
	duchanh@aol.com	오하이오 :	Mr. & Mrs. Vu Van Phuong 1-513-887-8597
켄터키 :	Mr. & Mrs. Nguyen Minh Hung 1-502-695-7257		von@swoca.net
			Mr. Gilbert Rivera 1-513-381-4554
	FNGUYEN@MAIL.STATE.KY.US		wisdmeys@aol.com
루이지애나 :	Mrs. Jon L Fontenot 1-504-483-3234	오클라호마 :	Mr. & Mrs. Tran Kim Lam 1-405-632-1598
	jfontenot@hotmail.com		LTRAN2292@aol.com
메사추세츠 :		오리건 :	
*보스턴	센터 1-978-436-9982	*포틀랜드	Ms. Vera Looijenga 1-503-234-1416
	shinemound@earthlink.net		
	Ms. Gan Mai-Ky 1-508-791-7316		Mr. & Mrs. Minh Tran 1-503-614-0147
	Mr. & Mrs. Huan-Chung Li 1-978-957-7021		orcenter@hotmail.com
메릴랜드 :			Mr. & Mrs. Alistar Phuoc Minh Pham
	Mr. Nguyen Van Hieu 1-301-933-5490		1-503-642-1252
	HughMDCenter@yahoo.com		AlistarPhuocPham1@juno.com
	Mr. Robert Ectman 1-301-972-5654	펜실베이니아 :	Mr. & Mrs. Diep Tam Nguyen 1-610-626-5546
	bce94@hotmail.com		Diep.Ngu.PA@juno.com
미시간 :	Ms. Susan Manturuk 1-616-588-6341		Mrs. Ella Flowers 1-215-879-6852
	manturuk@torchlake.com	텍사스 :	
		*오스틴	센터 1-512-396-3471
미네소타 :	Ms. Quach Ngoc 1-612-722-7328		jwul@austin.rr.com
	quach001@juno.com		Mr. Dean Duong Tran 1-512-989-6113
미주리 :			tranduongdean@yahoo.com
*제퍼슨	Ms. Mary E. Steck 1-573-761-9969	*달라스	센터 1-214-339-9004
	MSteck5208@aol.com		DallasCenter@yahoo.com
*롤라	Mr. Genda Chen 1-573-368-2679		Mr. Tim Mecha 1-972-395-0225
	gchen@umr.edu		mechat@email.msn.com
네브라스카 :	Ms. Celine Robertson 1-402-483-4067		Mr. Weidong Duan 1-214-528-9178
	ctrobert@yoda.unl.edu		water96@yahoo.com
네바다 :			Mr. Jimmy Nguyen 1-972-206-2042
*라스베가스	Ms. Helen Wong 1-702-242-5688		DallasCenter@hotmail.com
뉴저지 :	센터 1-973-209-1651	*휴스턴	센터 1-281-893-8300
	c_newjersey@yahoo.com		Ms. Carolyn Adamson 1-713-6652659
	Mr. & Mrs. Nghiem The Trung 1-609-667-3829		caroltex@interserv.com
	albert_nghiem@hotmail.com		Mr. & Mrs. Charles Le Nguyen 1-281-370-3898
	Mr. Chang-Sheng Chou 1-973-335-5336		DNguyen376@aol.com
	JohnChou@ymlusa.com		Mr. & Mrs. Robert Yuan 1-281-251-3199
뉴멕시코 :	Mr. & Mrs. Nawarskas 1-505-822-1560		Robert.Yuan@Compaq.com



*샌안토니오	Mr. Khoi Kim Le	1-210-558-6088	★ 인도네시아		
버지니아 :	센터	1-703-941-0067	발리	센터	62-361-231-040
	Mr. & Mrs. Hua Phi Anh	1-703-978-6791			begodnow@yahoo.com
		anhhlly@dotplanet.com			
*버지니아 비치			자카르타	센터	62-21-6319066
	Mr. David Young	1-757-588-8468			smch-jkt@dnnet.net.id
		davidkyoung@hotmail.com			
워싱턴 :				Mr. Tai Eng Chew	62-21-6319061
*시애틀	Mr. Ben Tran	1-425-643-3649		Ms. Lie Ik Chin	62-21-6510218
		benptran007@hotmail.com			financel@ueii.com
	Mr. Edward Tan	1-206-228-8988		Ms. Murniati Kamarga	62-21-3840845
		edtan@usa.com			hai@cbn.net.id
*요밍	Ms. Esther Mary Cole	1-307-332-7108	수라바야	센터	62-21-7364470
		sumaemc@yahoo.com			62-31-5673084
				ahimsasb@indosat.net.id	
				Mr. Harry	62-31-594-5868
					harry_1@sby.dnnet.net.id
★ 푸에르토리코			마겔랑	Mr. Njo Kwat Gone	62-293-367-031
카뮈	Mrs. Disnalda Hernandez Morales	1-787-262-1874	말랑	Mr. Judy R. Wartono	62-341-491-188
		disnalda@@caribe.net		yudi_wartono@telkom.net	
샌주안	Ms. Shanti Ragyi	1-787-723-7138		Mr. Henry Soekianto	62-341-325-832
		shantiragyi@hotmail.com	육아카르타	Mr. Augustinus	62-274-588-105
					tadianingtyas@eudoramail.com
***아시아***			★ 일본		
			군마	Ms. Hiroko Ichiba	81-27-9961022
					truelove@meth.biglobe.ne.jp
★ 아르메니아	Mr. Armen Hovhannisyan	374-1-227303	구마모토	Ms. Mochinaga Eiko	81-96-346-2928
		armenhovhannisyan@hotmail.com			genesis@mb.infobears.ne.jp
★ 포모사			도쿄	Ms. Yukiko Sugihara	81-3-3307-1643
타이베이	센터	886-2-23757527			cal13840@pop07.odn.ne.jp
		smchtpe@ms33.hinet.net		Mr. Yoshie Takeda	81-90-3963-0755
	Mr. Chuan-Ping Yang	886-2-23756784			y-plus@f6.dion.ne.jp
	Mr. Chiu Min Fen	886-2-23890885	★ 한국		
미아오리	Mr. & Mrs. Chen Tsan Gin	886-37-221618		출판사	02-2202-8090
	Mr. Chu Chen Pei	886-37-724726			chinghai@unitel.co.kr
까오슝	Mr. Fei Lung Wu	886-8-7211692	서울	서울 센터	02-5772158
	Mr. Yuan Hua Wu	886-8-7562020			quanyim@unitel.co.kr
★ 홍콩	센터	852-27495534		오종철	02-5755080
	연락인 사무실	852-26378257		유태인	02-7953927
		lovequanyin@hotmail.com	부산	부산 센터	051-5819200
					quanyin@unitel.co.kr
★ 인도				송호준	051-9574552
봄베이	Mr. Suneel Ramaney	91-22-282-0190		황상원	051-8057283
		trust_god@indiatimes.com		이원석	051-8946645
캘커타	Mr. Ashok Sinha	91-33-655-6741	전주	전주 센터	0652-2747553
				임지환	0652-2729087



## 전세계 연락처

인천	인천 센터	032-2441250	Mr. Raj Jumar Lama	977-61-31413
대구	대구 센터	053-7434450	★ 필리핀	마닐라 센터 632-433-9248
		chinghaidaegu@hanmail.net		manilach@hotmail.com
	김익현	053-6333346	★ 싱가포르	센터 65-741-7001
대전	대전 센터	042-6254801		chinghai@singnet.com.sg
	김수동	042-2547309		연락인 사무실 65-846-9237
광주	광주 센터	062-5257607	★ 스리랑카	
	김소연	062-2325630	콜롬보	Mrs. Suranganie Dayaratne 94-1-760927
안동	안동 센터	054-8213043		jean@sol.lk
	김삼태	054-8734961	★ 태국	
영동	영동 센터	054-5325821	방콕	센터 662-674-2694
		houmri@unitel.co.kr		bkk_c@hotmail.com
제주	제주 센터	064-996113	Ms. Laddawan Na Ranong	662-5914571
★ 마카오	센터	853-532231		edasnlad@samsorn.stou.ac.th
		macau_center@email.com	Mr. Wu Peir Yuan	66-1-8248294
	연락인 사무실	853-532995	치앙마이	센터 66-53-217080
★ 말레이시아			Ms. Siriwan Supatrachamnian	66-53-
알로르 세타르		387126		
	Mr. Chiao-Shui Yu	60-4-7877453	하야이	센터 66-74-368329-30(c/o 155)
조호르 바루	Mr. & Mrs. Chi-Liang Chen	607-3516075	콘캔	센터 66-43-261878
		supreme2@tm.net.my	Mr. Paisal Chuangcham	66-43-241718
팔라룸푸르	센터	60-3-9873904		
		klsmch@tm.net.my		
	연락인 사무실	6012-259-5290	***유럽***	
		klgcp@hotmail.com	★ 오스트리아비엔나	센터 43-664-3909200
페낭	센터	60-4-228-5853		Chinghai@A1.net
		pgsmch@pd.jaring.my	Mr. & Mrs. Nguyen Van Dinh	43-2955-
	Mr. & Mrs. Lin Wah Soon	60-4-6420370	70535	
★ 몽고			Mr. Shih-Tsung Lu	43-2266-80399
울란바토르	Mrs. Luvsan Tsengel	976-11-344604		sound@gmx.at
바가누르	Mr. & Mrs. Gursad Bayarsaikhan	976-31-21174		
★ 벨기에			★ 벨기에	
★ 미얀마	Mr. Sai San Aik	951-667427	브뤼셀	Mr. Hugo Berton 32-1640-0377
★ 네팔				universal@planetinternet.be
카트만두	센터	977-1-254481	★ 불가리아	Mr. Ruslan Staykov 3592-575358
				oldruslan@yahoo.com
		chinghai_kathmandu@hotmail.com	★ 체코	
	Mr. Ajay Shrestha	977-1-473558	프라하	센터 42-02-6136-3031
		ajaystha@hotmail.com		prague-center@chinghai.cz
포카라	센터	977-61-28144		
		chinghai2000pokhara@hotmail.com	★ 크로아티아	Mr. Zeljko Starcevic 385-51-251081
	Mr. Bishun Neupane	977-61-21201		zeljko@mindless.com
		neupanebishnu@hotmail.com	★ 덴마크	연락인 사무실 45-66-190459
	Mr. Shiva Bastola	977-61-28255	★ 핀란드	
		pokharacenter@hotmail.com	헬싱키	Miss. Luong Hoang Hanh 358-9-8537455





	fin_con_hhanh@artic.net	슈체친	Mrs. Grazyna Plocinizak	48-091-4874953	
	Ms. Anne Nystrom	358-9-793902	바르샤바	Mrs. To Soszynska	48-22-6593897
	anne.nystrom@iobox.fi			quanyin@home.pl	
★ 프랑스			로드츠	Ms. Lukaszewska Mariola	48-42-6860037
파리	센터	33-1-4300-6282		czakra@interia.pl	
	Ms. Lancelot Isabelle	33-1-40301174	★ 포르투갈		
	ilancelot@celestialfamily.net		리스본	Mr. Helder Hen Keon Kong	351-1-920-4118
	Ms. Ngo Thi Huong	33-1-424-31924		lisbon_center@notmail.com	
몽펠리에	Mr. Nguyen Tich Hung	33-4-67413257	★ 러시아		
아르데슈	Ms. Reynet Jeanine	33-4-75376232	모스크바	Mrs. Gareeva Lira	7-095-732-08-32
★ 독일				a-b-serapis@mtu-net.ru	
베를린	센터	49-30-3470-9262	★ 슬로베니아		
	berlincenter@hotmail.com			Mr. Rastislav Alfonz Kovacic	386-35-814981
	Mr. ChristianBastwoeste	49-30-3470-		dbk@siol.net	
9262			★ 스페인		
뒤셀도르프	연락인 사무실	49-5232-68564	마드리드	센터	34-91-5470366
		49-211-5144785		Ms. Lidia Kong	34-91-7756670
	ngoc-thao.nguyen@gmx.de		말라가	Mr. Wang Ya-King	34-95-2351521
	dusseldorfcenter@hotmail.com		발렌시아	Ms. Xi-Chun Wang & Ms. Xin-Lan Yang	34-96-3336208
함부르크	연락인 사무실	49-581-15491		Vegetarian House	34-96-3744361
뮌헨	Ms. Kang Cheng	49-89-3616347		Mr. Yu Xi-Qi	34-96-3726401
	Ms. Johanna Hoening	49-8170-997050		valenciachinghai@yahoo.es	
	ChingHai@aol.com				
★ 그리스			★ 스웨덴		
아테네	Mr. Constantine Manos	30-61-278106	엔겔홀름	Mrs. Luu Thi Dung	46-431-26151
	constantinem@hotmail.com			hang.nguyen@spray.se	
★ 네덜란드			오레	Ms. Viveka Widlund	46-647-32097
암스테르담	Mr. Nguyen Ngoc Trung	31-294-41-9783		widlund@hem.utfors.se	
	Vothuong5@cs.com		말뫼	Mr. & Mrs. John Wu	46-40-973452
	Mr. Marcel Mannaart	31-72-5070236	스톡홀름	Mr. Mats Gigard	46-8-882207
	m.mannaart@planet.nl			mats.gigard@telia.com	
★ 헝가리			웁살라	Ms. Premila Perera Ivarsson	46-18-302029
부다페스트	센터	361-363-3896		premila-perera@pharmacog.uu.se	
	heaven.bud@mail.matav.hu		★ 스위스		
	Mr. Lux Tamas	36-309-611994	제네바	Ms. Feng-Li Liu	41-22-7973789
	Ms. Dora Seres	36-1379-1924		gefliu@yahoo.com	
지올	Mr. Lehel Csaba	36-96-456-452		Ms. Klein Ursula	41-22-3691550
	clehel@freemail.hu		★ 영국		
★ 아일랜드			체스티	Mrs. Janet Weller	44-1782-414989
더블린	Mr. & Mrs. Bernard Leech	353-1-6249050		janet.weller@Zoom.co.uk	
	berardleech@unison.ie		런던	센터	44-208-3742743
★ 노르웨이				연락인 사무실	44-207-4731421
오슬로	Mr. Nguyen Ngoc Tai	47-22-612939		pnl@matters19.freemove.co.uk	
	tnguyen@c2i.net		서리	Mr. Hu Tchang Rong	44-1293-416698
★ 폴란드			★ 스코틀랜드		



## 전세계 연락처

에든버러 Mrs. Annette Lillig 44-131-6660319  
lillig@btinternet.com  
글래스고 Mr. Robert Jackson 44-141-637-7255 퍼스  
Robert.jackson@classicfm.net

Mr. Pham Van Bon 613-9470-4573  
Mr. Alan Khor 61-3-9857-4239  
센터 61-8-9242-1189  
Mr. David Robert Brooks 61-8-9418-6125  
daveb@iinet.net.au

## \*\*\*오세아니아\*\*\*

### ★ 호주

에들레이드 Mr. Leon Liensavanh 618-83326192  
브리즈번 센터 617-3374-3339  
briscentre@hotmail.com  
Mr. Gerry Bisshop 617-3847-1646  
Mrs. Tieng Thi Minh Chau 617-3715-7230  
ctieng@dme.qld.gov.au  
Mr. & Mrs. Yun-Lung Chen 617-3344-2519

### 바이런 베이/노던 리버스

Mr. & Mrs. Ray Dixon 612-6685-3248  
rayandjulie@linknet.com.au

캔베라 Mr. & Mrs. Khanh Huu Hoang 612-6259-1993  
smcanbra@cyberone.com.au

멜버른 센터 613-9890-0320  
Melbsmch@aol.com  
Mrs. Rosemary Nagtegaal 613-9585-7871

### 시드니

Mr. Ly Van Tri 61-8-9244-7661  
Mr. Eino Laidsaar 612-9477-5459  
einoforquanyinsydney@yahoo.com  
Mr. Hong Bo 61-2-97887588  
hongbo\_huang@hotmail.com

### 태즈메이아

Mr. Peter John Boatfield 61-3-62293878

### ★ 뉴질랜드

### 오克蘭드

Mr. Kym Anton Toia 649-419-4470  
nzanton@yahoo.com  
Mrs. Noelyne No Thi Ishibasi 649-277-9285  
takahide@xtra.co.nz

Mrs. Chanwu Wong 649-266-6898

### 크라이스트처치

Mr. Michael Lin 64-3-3436918  
chaomim@hotmail.com

### 해밀턴

Mr. Glen Vincent Prime 647-849-4442  
glenprime@hotmail.com

### 타우랑가

Ms. Joy Daniels 647-544-5268

## “예술과 영성” TV 프로그램 비디오 테이프

이메일: art&spirituality@Godsdirectcontact.org  
팩스: 1-413-751-0848(미국)

### 뉴스그룹

이메일: lovesrc@Godsdirectcontact.org  
팩스: 1-801-7409196/ 886-946-728475

### SM 경서조

이메일: divine@Godsdirectcontact.org  
팩스: 1-240-352-5643 / 886-943-802829  
(스승님의 책을 각국 언어로 번역하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 수행 상담소

이메일: lovewish@Godsdirectcontact.org  
팩스: 886-946-730699

## SM 보석 주식회사

이메일: smcj@ms34.hinet.net  
전화: 886-2-87910860  
팩스: 886-2-87911226

## 포모사 타이베이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smchbooks@Godsdirectcontact.org  
전화: (886) 2-87873935  
팩스: (886) 2-87870873

## 대한민국 창하이 무상사 국제협회 출판사

이메일: chinghai@unitel.co.kr  
전화: (82) 2-2202-8090  
팩스: (82) 2-2202-8091

## LA센터 경서팀

이메일: vole@earthlink.net  
팩스: 1-909-738-9992





무상예술

## 해피 요기의 세상

대지의 어머니가 부르든  
만물에 생명을 주고  
모든 것을 품에 안아주는 그녀

우주적인 사랑과 너그러움,  
고요한 겸허의 상징  
생명으로 가득 찬 그녀의 토양에서  
우주의 힘이 박동 치는데,  
그녀의 아이들의 마음속의 고향을 일깨워  
자신의 품속으로 보듬어 안는다

3월 초 SM 천의 팀은 시후 센터에서 일련의 해피요기 의상 전시회를 개최했다. 매달 새로운 주제를 다룰 이 전시는 특별히 꾸며진 전시장에 스승님의 아름다운 창작품을 전시하여 동수들로 하여금 스승님의 노고와 사랑을 이해토록 한다.

SM 해피요기 의상은 1999년 말, 우리가 언제나 영적 수행을 견지하고 늘 진정한 내면의 성품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승님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디자인된 작품이다. 매혹적인 꽃무늬와 깔끔한 형식을 갖춘 이 캐주얼 의상은 스승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자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의 인연을 다지는 한 방편이기도 하다.

3월의 주제는 '대지' 였는데, 가로 10미터, 높이 3미터의 벽면에 흙색 계열의 해피요기 의상을 전시하여 우아하고도 목가적인 분위기를 연출했다. 스승님이 디자인하신 1인용 다목적 텐트는 다양한 흙색 해피요기 의상을 입은 마네킹 사이에서 독특하게 자리잡아 천상의 분위기 조성에 일조했다.

다른 천의들은 '유럽 여성' 코너에 전시되었는데, 고요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연출을 통해 이국적이고 로맨틱한 풍경을 자아냄으로써 사람들의 발걸음을 붙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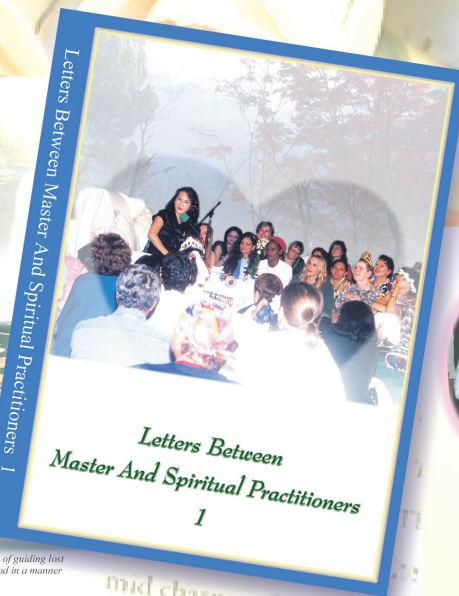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s an enlightener Master who teaches the most ancient and natural path to spiritual enlightenment called the "Quan Yin Method." This Method, suitable for children and adults, is the fastest and easiest way to God-realization and involves not only a method of meditation on Light and Sound of God, but also teaches a total way of living that leads to self-perfection and annihilation of the ego through diligent introspection and adherence to a "saintly standard of living". "Letters Between Master Ching Hai and spiritual practitioners seeking answers to practical and theoretical questions that arise in the course of practice and also includes moving testimonials to the Master's grace and protection in their everyday lives. Seasoned practitioners and beginners to the spiritual path, all are sure to be gripped by these beautiful letters that attest to the unfathomable love bestowed on humankind by the gracious Living Master.



Supreme Master Ching Hai undertakes Her mission of guiding lost and yearning souls back to their true Home with God in a manner that is light-hearted and fun-filled.



전세계 연락처



We can say that we have made spiritual progress only when we have compassion and love, not just by counting how much time we have meditated each day. Observing ourselves becoming more compassionate and forgiving to other people, we know we have progressed, regardless of what inner vision we might see.  
-Spoken by Supreme Master Ching Hai

새로 나온 책

## 영문판 사제지간의 편지 1권이 나왔습니다.

영문판 '사제지간의 편지' 1권은 칭하이 무상사와 그녀의 제자들, 다른 수행자들간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모아 편집한 신간입니다. 각 편지들은 모두 영감에 넘치며, 우리가 수행 중 부딪힐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스승님은 통찰력 있는 답변으로 우리 내면의 의심을 풀어 주시는 한편,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문제점들을 예리하게 지적해 주십니다. 이 책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법부터 조화로운 인간관계 형성에 이르기까지 수행 전반에 관한 풍부하고 폭넓은 내용을 담고 있으며, 스승님의 지혜로운 말씀은 어두운 밤의 등대처럼 우리가 수행하는 동안 가야 할 정확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제자들에 대한 스승님의 꼼꼼한 배려와 무한한 은총이 제자들과 주고받은 편지 속에 여실히 드러나 있으며, 진실한 감동을 주는 낱말의 일화들은 스승님의 헤아릴 수 없는 사랑과 무소부재한 힘에 대한 완벽한 실증이기도 합니다.

이 편지들 속에서 빛나고 있는 스승과 제자 간의 끊임없이 흐르는 사랑의 물줄기는 여러분 가슴에 깊은 감동을 주고, 수행과 일상 생활 중 부딪히는 도전에 맞설 용기와 신심을 더해줄 것입니다.

관련 웹사이트 주소 : <http://www.godsdirectcontact.org/eng/news/121/es1.htm>

## 칭하이 무상사 최신 출시 비디오 테이프

〈영문판, 어울락어 자막〉

669 신의 자비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강연  
1999년 11월 27일

〈영어, 한국어 동시통역〉

707 스승의 바디코드

한국서울 단체명상  
2000년 5월 20일

스승님의 출판물을 주문하려면  
이곳으로 연락하세요: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 Taipei,  
Formosa

Tel: (886) 2-87873935

Fax: (886) 2-87870873

E-mail : wisdom@m2.dj.net.tw

대만 우체국 송금계좌 번호 : 19259438

수취인: The Supreme Master Ching Hai

International Association Publishing Co., Ltd.